



〈교 운〉
진리를 구이저
어위를 버리저
희 생 이 저

해사학보

학교장 기위목표 및 방침

- 정예 호국간성 육성
- 참 군 인 양 성
- 교육의 내 실 화
- 자 금 심 고 양

2008년 12월 22일 월요일

제238호(제6305호)

The Naval Academy Press

발행인 중장 최윤희 / 주간 중령 김 용 / 편집국장 대리 3학년 남경모 생도 / 발행 해군사관학교 학보사 / 우 645-797 경남 진해시 앵곡동 사서함 88-1-5 ☎ (055)549-1063 http://www.navy.ac.kr / 인쇄 해군인쇄장

“미래를 선도하는 해양과학기술” 모색

12월 5일, 해양과학·무기체계 등 3개 분과별로 학계와 연구소, 해군과 방위산업체 전문가들이 해사에 모여 「제13회 해군해양과학기술 심포지엄」 열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12월 5일 경남 진해의 해군사관학교 교정에서 열렸다. 해군사관학교(학교장 최윤희 중장)는 서울대, 국립해양조사원,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현대중공업 등 해양관련 산업체·학계·연구소를 대표하는 전문가 12명을 초청하여 사관생도 및 교직원 등 45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해군 해양과학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의 해양학자와 연구소, 해군 등 유관기관의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해군의 과학화·정비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군사관학교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는 이 심포지엄은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미래를 선도하는 해양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해양과학, 해양공학, 무기체계 등의 3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별로

학계, 연구소, 해군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토의했다. 해양과학 분과에서는 “동해 해양환경과 군사적 적용”을 주제로 하여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연구현황 및 과제(서울대 김윤배 박사)’,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한 동해 준 실시간 해류 추산(국립해양조사원 변도성 박사)’ 등 4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김윤배 박사는 발표논문에서 독도 주변해역은 변동성이 큰 해역으로, 장기적인 해면의 높이 관측 및 과학적 연구결과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대와 해군이 공동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연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양공학 분과에서는 “군 적용 가능 해양공학 기술현황”을 주제로 하여 ‘수중감시·정찰체계 발전동향(해군대령 허홍범 박사)’, ‘대형 위그선 개발현황 및 활용방안(영원테크놀로지 강창구 대표)’ 등 4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강창구 대표는 발표논문에서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위그선 기술이 해군의 초고속 상륙함이나 구난함, 군수지원함 등에도 활용 가능함을 강조하며, 조기 상용화 방안을 주장했다. 무기체계 분과에서는 “최신 잠수함 무기체계 기술개발”을 주제로 하여 ‘잠수함 선체 설치기법 및 특수성능(현대중공업 이응대 부장)’, ‘잠수함 전투체계 기술개발동향(ADD 이성은 박사)’ 등 4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이성은 박사는 발표논문에서 최근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지에서 최신 기술로 개발되는 ‘데이터 링크(Data Link) 능력 확대 및 통합제어’가 가능한 잠수함 전투체계를 비롯하여 향후 한국 해군의 중(重)잠수함 전투체계 국내 개발계획 등을 소개했다. 해사교장 최윤희 중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산·학·연·군

의 전문가가 함께 모여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할 기회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심포지엄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며, “해양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가대 형성과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해사에서는 한국 해양공학회 산하 수중로봇기술 연구회가 주최하는 ‘08년도 추계 워크숍’도 함께 열려 포항공대, KAIST, 한국해양대, 제주대 등에서 12명의 연구진이 참가한 가운데 8편의 논문과 4편의 수중로봇 연구모형 등의 포스터를 발표했다. 해군사관학교는 이번 해군 해양과학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술활동 중심의 경제적이고 실속있는 심포지엄이 되도록 추진했다.

정훈공보실 중위 최환철

최윤희 중장, 제43대 학교장으로 취임

제43대 본교 학교장으로 최윤희 중장(해사 31기)이 취임했다. 제42·43대 해군사관학교장이 취임식이 11월 14일 금요일 오전에 정육근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주요 지휘관과 재진지역 기관장 등 내외 귀빈, 그리고 사관생도와 장병 및 군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병장에서 거행됐다. 정육근 해군참모총장은 훈사를 통해 최윤희(해사 31기) 전임 교장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최윤희 신임 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정예 호국간성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윤희 중장은 “세계의 무대에서 활약할 우리 해군을 이끌어 갈 정예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해사가 변화와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군사교육기관으로서의 해사 정체

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의 안보, 전쟁환경과 군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선진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명예심과 자긍심이 충만한 장교를 양성하는 세계 명문의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신임 교장은 경북함장을 지내며 최고도의 전비태세를 유지하여 경북함을 ‘전비우수함’과 ‘포술 최우수함’으로 만들었으며,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 재직 시에는 월드컵 기간 중 해상 방위태세를 완벽히 수행하며 성공적인 행사를 뒷받침했다. 또한 NLL 수호 대책 및 한·미 연합작전수행능력 향상 방안을 수립하여 작전수행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 준장진급과 동시에 해군 제5전단으로 근무하면서 미래 해군의 임무 및 역할 정립을 위한 기동전단 운용

개념을 연구하고, 적극적인 대인 지원활동(제주도 해녀, 잠수병 치료)으로 민간화합에 앞장서기도 했다. 순항훈련 중 소장으로 진급했고 해사 부교장으로 잠시 재직하다가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2년간 맡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집권관리를 위해 집권 심사제도와 근무 평정제도를 개선하고, 미래 전쟁환경 및 첨단무기체계 운용에 부합한 양성 및 보수교육체계 개선,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제도 정립 등 해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신임 교장은 “미해군 전투병과학교 대잠전과정”, “미해군 해대참모과정”, “국방대 안보정책과정” 등 다양한 국·내외 군사교육을 수료, 국제적 안목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사관생도 육성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학년 박재용 기자생도



정육근 참모총장이 최윤희 중장에게 해군사관학교 부대기를 수여하고 있다.

해군참모총장, 본교 방문

“중식 함께하며, 사관생도에게 꿈을 먹이다”



해사를 방문한 정육근 참모총장이 사관생도들에게 훈시하고 있다.

정육근 해군참모총장(해사 29기)은 11월 27일 해군사관학교를 격려 방문하여 사관생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참모총장은 이날, 본부 참모들과 함께 해사를 찾아 해사본관인 충무관에서 학교장 최윤희 중장과 환담을 나누고, 점심시간에는 생도사 6층에 있는 생도식당인 명랑관에서 사관생도들과 중식을

함께 했다. 중식에 앞서 참모총장은 사관생도들에게 “조국과 해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예 해군 해병대 장교가 되기 위해 학업과 체력단련 등 자기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또한 중의 근본은 효인을 명심하고 부모 충무관에서 학교장 최윤희 중장과 환담을 나누고, 점심시간에는 생도사 6층에 있는 생도식당인 명랑관에서 사관생도들과 중식을

정예 선진해군 건설을 참모총장님의 해사와 함께 한 발자취”란 영상물(UCC)을 시청했다. 해사 29기로 해사에 입교한 이후 참모총장으로 해군을 지휘하는 모습까지 담은 약 5분 분량의 영상물 시청을 통해 사관생도들은 장차 해군장교로서의 포부와 꿈을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3학년 남경모 기자생도

“해사, 3군사관학교 훈육요원 워크숍 개최”

21일 육·공사 훈육요원을 초청, 정예 호국간성 육성을 위한 올바른 사관생도 훈육에 대해 발표 및 토론

각군 훈육제도와 기법에 대한 정보공유, 우호증진, 미래 합동작전 수행할 사관생도 육성 등 기여



21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3군사관학교 훈육요원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정예 호국간성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학교장 최윤희 중장)는 11월 21일,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훈육요원들을 초청하여 「3군 사관학교 훈육요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미래 대한민국 국방의 간성인 사관생도들에 대한 발전적 훈육 방안을 토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관학교 훈육요원들이 장차 장교로 임관해 합동작전을 수행하게 될 3군 사관생도들에 대한 효과적인 훈육방법에 대해 발표하고, 각 사관학교의 훈육기법과 현안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해사가

육·공사에 제의함으로써 처음 마련됐다. 해사 생도대 회의실에서 실시된 워크숍에는 해사 생도연대장 정우성 대령과 훈육요원 중령, 육사 지영호 소령 등 훈육관, 공사 대대장 배형모 대령(진)과 훈육장교 등 모두 17명이 참가했다. 워크숍에서 먼저 해사의 중대 훈육관을 맡고 있는 김지훈 소령(37, 해사 48)이 “최근 해군사관생도 연대내구 개정 추진현황”을 소개하며 사관학교의 발전과 시대변화에 부합

하는 사관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거나 검토가 요구됐던 규정에 대해 의견을 발표, 참가자들의 토론을 유도했다. 김 소령은 안전 발표에서 현실과 거리가 먼 일부 규정들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사관생도 음주 허용의 경우는 장관급 장교가 허가 시 가능하다”는 현 규정이 사실상의 음주 기회를 연 1~2회로 제한하고 있어 입관 전 사관생도들에게 음주예절을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어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약혼의 경우에도 여성도 입학 허용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사관학교 출신 동기생간 결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사의 지영호 소령(37, 육사 50)은 “생도 중심의 체육교육”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생도들의 체육교육은 사전과 연계해 입관 후 임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전 발표에서 지 소령은 “장애물 넘기”, “신약법결음” 등 육사가 시행하고 있는 순환식 체력단련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고, 참가자들도 ‘생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체력단련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토론을 실시했다.

공사의 라대영 소령(35, 공사 45)은 “생도 담고 멋있게 웃기기”라는 주제로 생도들의 외출시 사복 착용에 대한 발표를 실시하며 “사복착용은 장단점이 있는 만큼 생도들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바르고 단정하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을 보완해 훈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면서도, 세부 규정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등 시종일관 뜨거운 열기속에 토론이 진행됐다. 워크숍을 진행한 해사 김지훈 소령은 “각군 훈육요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각군 사관학교의 특성과 문화가 존재하는 만큼 훈육기법이나 제도들이 많이 다르고 의견차이도 있음을 느꼈지만, 훈육요원들이 사관생도 교육에 대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올바른 훈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해사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각군 사관학교에서 돌아가며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훈공보실 중위 최환철

간접·테러범·방산스파이신고는 ☎ 1337번으로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http://www.dsc.mil.kr)

국군 제 205 기무부대

지면안내

- 2 학교 소식
- 3 사설, 소식
- 4 예비역 광장
- 5 생도 광장
- 6 생도 광장
- 7 학술
- 8 문화

12월 24일 순항훈련함대 귀항

4학년 순항훈련 종료, 1~3학년은 동계휴가 돌입

12월 24일 해군순항훈련함대가 귀항한다.

2008년 8월 25일(월) 오전,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정육근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 및 장병,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떠났던 63기(4학년) 순항훈련함대가 12월 24일 귀항하여 순항훈련이 종료된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시작으로 일본·태국·싱가포르·인도·이집트·터키·그리스·오만·UAE·바레인·몰디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 등 15개국 15개항을 대상으로 총 항정 3만 5천Km(24.328NM)을 항해한 이번 순항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 대조영함(DDH-II, 4,500톤)과 군수지원함 천지함(AOE, 9,000톤)이 참가하였다.

이와 함께 방문기간 중 러시아

아·싱가포르·인도·터키·말레이시아 해군과 연합기회훈련을 실시하고, 15개국 방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물놀이, 군악대 연주, 태권도 및 의장대 시범행사 등 문화공연을 펼침으로써 연합작전능력 향상은 물론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특히, 기항지별 맞춤형 행사로 방문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전달했으며 태국에서는 한-태국 수교 50주년 기념 군악연주회를 개최했으며, 터키, 그리스 등 한국전쟁 참전국에서는 참전용사를 초청했다.

또 해군순항훈련함대는 순항기간 중 함정에 '실용교육상항실'을 설치하여 사관생도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사관생도 자체적으로 이동항로별 주요 해전사와 기항지별 선진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동아리 활동과 함께 사관

생도들에게 방문국 군사시설, 전·사적지, 그리고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12월 9일(화)~13일(토) 4박 5일간 사관생도 동계 해외 현지실습을 가졌으며, 이 현지실습을 통하여 국가관 확립 및 애국심을 고취하고 체험을 통한 역사 및 문화

를 이해하며,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국제적 안목의 배양과 자부심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2월 15일(월)부터 '09.1.2(금)까지 한양대 등 8개 대학에서 계절학기기가 있을 예정이다. 청강 실적에 따라 매 학기 최대 5점 성취점을 부여되며, 1학년 제외된다. 청강을 통하여 전문지식 습득 및 일반대학 캠퍼스 문화체험으로 보다 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보다 멋진 생도로서 거듭날 것이다.

1~3학년은 12월 5일(금)부터 동계 휴가에 들어간다. 생도들은 1달 여간의 동계휴가 동안 부족한 과목의 보충이나 여행을 통한 배움 등으로

다음 1년을 준비한다. 뿐만 아니라 12월 9일(화)~13일(토) 4박 5일간 사관생도 동계 해외 현지실습을 가졌으며, 이 현지실습을 통하여 국가관 확립 및 애국심을 고취하고 체험을 통한 역사 및 문화를 이해하며,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국제적 안목의 배양과 자부심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2월 15일(월)부터 '09.1.2(금)까지 한양대 등 8개 대학에서 계절학기기가 있을 예정이다. 청강 실적에 따라 매 학기 최대 5점 성취점을 부여되며, 1학년 제외된다. 청강을 통하여 전문지식 습득 및 일반대학 캠퍼스 문화체험으로 보다 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보다 멋진 생도로서 거듭날 것이다.

3학년 서창형 기자생도

최윤희 교장, 사관생도 생활 체험

1박 2일간 사관생도와 동숙, 비상소집, 아침점호 등 동침 근무원, 수병 등 계층별 간담회로 역동적인 교육환경 조성

최윤희 학교장이 취임 후 사관생도 생활체험과 사관생도들을 가장 가까이서 근무 지원하는 군(군)무원과 수병들을 차례로 만나,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2월 2일, 사관생도 생활관인 세방관 6층 세방관에서 석식을 함께하며 시작한 학교장의 사관생도 생활체험은 3층에 마련된 숙소에서 점호를 받고 취침을 준비했다.

이날 저녁 불시에 시작한 비상소집 훈련을 함께 한 학교장은 전 사관생도와 함께 약 10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구보했다. 샤워 후 취침 나팔소리에 소동한 후 사관생도 생활관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 날

아침 6시 30분에 시작된 사관생도 아침점호에도 참여하며, 학교출장하는 사관생도들을 지켜보며 학교장의 1박 2일 사관생도 생활체험은 마무리됐다.

최윤희 학교장은 사관생도들과 동숙하며, 근무자 생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관생도는 전문지식 습득과 전력향상, 군기훈련 등을 항상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지·덕·체 함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학교장은 3일에는 사관생도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지원하는 식당, 세탁소, 이발소 등에 근무하는 군(군)무원들 19명과 만찬하며

격려했다. 또, 12월 10일부터 '09년 1월 1일까지는 이병-병장까지 수병들을 대상으로 계층별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했다.

학교장 최윤희 중장은 이 자리에서 "장차 해군을 이끌어 가는 사관생도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사관학교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매사에 정성을 가지고 사관생도 근무지원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장은 간담회에서 청취한 근무 애로사항들은 즉각적인 개선이 되도록 해당부서에 지시했다.

정훈공보실 중위 최현철



12월 정진전력 강화 및 군 기강 확립 특단의 달을 시작하면서 학교장 최윤희의 중장이 사관생도들과 함께 구보하고 있다.

부교장 김동균 준장, 생도대장 배종영 준장(진), 교수부장 임원빈 대령 부임



부교장 준장 김동균



생도대장 준장(진) 배종영



교수부장 대령 임원빈

본교 신입 부교장, 생도대장, 교수 부장이 12월 중 부임했다. 부교장에는 김동균 준장(해사 337기)이, 생도대장에는 배종영 준장(진, 해사 37기)이, 교수부장은 임원빈 대령(해사 34기)이 각각 새로이 중책을 맡았다. 김동균 준장은 한미연합사 인사 참모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배종영

준장(진)은 작전사 예하 전대장 등을 역임하며, 2008년도 사관학교 주요 행사의 환경전단 진행형성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교수부장 임원빈 대령은 철학박사로 총무관리처심센터의 연구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해군 교육병과장을 겸하고 있다. 이밖에 12월 중에는 군사학처장

최강용 대령(해사 35기), 생도연대장 조영주 대령(해사 40기) 등 주요 보직자의 전임이 있었다. 지휘부 및 교내 주요 보직자의 인사이동이 마무리되는 2009년 1월부터는 '정예 호국 강성 육성'이라는 학교장 최윤희의 중장의 지휘목표 달성과 '참관인 양성, 교육의 내실화, 자긍심 고양'이라는

지휘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해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 교직원과 장병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역동적으로 향진할 예정이다.

정훈공보실 대위 이정규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 최고"

해사, 농민 시름 덜기 위해 '우리 농산물 구매운동' 펼쳐 총 1천 380여만원 상당의 감귤, 당근 구매

해군사관학교(학교장 최윤희 중장)는 최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우리 농산물 구매 운동'에 팔을 걷고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사는 11월 24일부터 제주도청을 통해 제주에서 수확된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추진, 1주일 동안 교내 장병 및 교직원들이 청정 제주산 감귤 10kg들이 211상자, 당근 20kg들이 30상자를 신청해 구매했고, 부대차원에서 사관생도 부식용으로 감귤 600상자를 구매하는 등 총 1천 380여 만원에 해당하는 우리 농산물을 구매했다.

해사는 지난 11월 3일 한마음 체육

대회 때도 사과, 배, 단감 등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 상품으로 나눠주었고, 5월과 6월, 10월에는 진해 웅천동 일대의 농가에서 장병 100여 명을 동원해 벼베기, 농작물 수확, 폐비닐 수거 등 일손돕기에 나서며 농가를 돕는데 적극 앞장섰다.

해사 군수처장 이현희 소령(해사 43기)은 "우리 농산물 구매는 농민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장병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어, 군과 농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학년 조정빈 기자생도



1 해군사관학교는 최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우리 농산물 구매 운동'에 적극 동참, 1,380여 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했다. 해사 장병들이 구매한 농산물을 옮기고 있다.

주목 이 교수

해사 최창목 소령, 세계 인명사전 등재

항해운용학과 최창목 박사, 전파항해학 및 전파흡수체에 관한 연구로 세계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 등재



해군사관학교 항해운용학과에서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창목(36, 해사 50기) 소령이 전파항해학 및 전파흡수체에 관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미국에서 발행하는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9년 판에 등재됐다.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 월드'는 미국인명정보기관(ABI), 영국 국제인명센터(IBC)가 발행하는 인명사전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고 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의 이력을 기록한 인명사전으로, 까다로운 선정기준, 오랜 역사, 수록된 전국에서 1만 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해 메이저급 대회로 진행해 전국 마라토너들에게 알려 '마라톤 도시 진해'라는 이미지도 연중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사관생도 50여 명도 종목별로 참가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며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to avoid most reproductions your biographical should be 2000-2001. Our address is 33000442/152/1003/10EFL/105192008

CHOI, CHANG MOOK, engineering educator; b. Eumseong gun, Chungbuk, Republic of Korea, Mar. 1, 1974; s. Byung Wook Choi and Byung Weong Bam; m. Su Kyung Lee, Oct. 24, 1998; children: Sun Ah, Sun Woo, BS, Korea Naval Acad., Jinhae, 1996; MS, AIAA, Seoul, 2001; PhD, Korea Maritime U., Busan, 2008; Capt., III class deck officer, Bu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fice, 2008; Lt. comdr., Navy, Jinhae, Gyeongnam, Republic of Korea, 2005--; asst. prof., Korea Naval Acad., Jinhae, 2008--; Mem., Maritime Info. and Comm. Soc., Korean Phys. Soc., Korea Electromagnetic Enging. Soc., Korean Inst. Nav. and Port Resch. Home: Doman-dong Apt 15-dong No 210 Jinhae Gyeongnam 645-754 Republic of Korea Office: Korea Naval Acad Aengok-dong Jinhae Gyeongnam 645-797 Republic of Korea Home EPhone: 82-55-542-2271; Office Phone: 82-55-549-1272; Office Fax: 82-55-542-0038; Business E-Mail: navsun@naver.com.

I hope to add my research interests in Bio data. As follows: *****

Research interests inc 마르퀴즈에서 온 편지

Radars(W-band 항행 레이더를 위한 전파흡수체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올해 2월 한국해양대 전파공학에서 전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지금은 해사에서 사관생도들에게 '전파항해학'을 가르치고 있다.

박사과정 3년 동안 최 소령은 「IEEE Microwave and Wireless Components Letters」, 「IEICE Transactions of Communications」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4개의 SCI(Science Citation Index : 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저널을 포함한 11개의 국제학술지에 전파항해학 전파흡수체에 관한 연구논문을 게재했다.

또,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2006 제12차 IAIN(국제항해기구연합) 국제심포지엄" 등 10여회 국제

학술회의에서 전파흡수체 개발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학술 활동으로 올해 11월에 발행된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 월드' 2009년판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전파흡수체는 반사파가 생기지 않도록 전파를 흡수하는 특수 재료로서, 최 소령이 개발한 항행 레이더 전파흡수체는 불필요한 전자파를 제어함으로써 군함이나 선박의 항해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 소령은 "앞으로 전파흡수체를 군사용 스텔스 기술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 해군 무기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2학년 김벌 기자생도

주요 단신

■ 서대문형무소 자원봉사

해사의 아름다운 전통인 서대문형무소 자원봉사가 올 동계휴가에도 어김없이 이어진다. 올해 7번째를 맞은 서대문형무소 자원봉사에 생도들의 뜨거운 자원이 이어졌다.

생도 3년 손세한 생도를 비롯하여 50여 명의 생도가 참가를 희망하였다. 자원봉사 기간은 평균 4일로 동계휴가 4주 동안 희망하는 주에 실시한다.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뒤 일년에 임하며 한 코스를 돌며 설명하는데 1시간 반 가량이 소요된다.

생도 1년 배선미 생도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역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뿌듯하고 기대가 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 모교홍보활동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2008년 두 번째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4월에 생도들은 모교를 방문 입시설명회를 한 바 있다. 이번 홍보에서는 생도들이 동계휴가 기간 중 12월 8일부터 9일 간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를 방문해 새내기 입시생들을 위해 입시설명회, 홍보영화 상영, 홍보물 배부 등 해군의 비전과 해군사관학교 생도생활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모교 홍보활동은 미래 해군의 주역이 될 인재들을 선출하고 후배를 만나기 위한 홍보인 만큼 생도들의 관심에 집중됐다. 한 해에 홍보활동을 두 번 실시한 것은 올 해가 처음이다.

■ 진해 마라톤

지난 11월 9일 일요일, 해군부대 영내를 달리는 '해군과 함께 달리는 제2회 진해 마라톤 대회'가 진해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하프 6개 부분, 10km 4개 부분, 5km 4개 부분으로 진행되었고, 각 종목을 나눠 참가자 1만 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였다. 특히 이번 마라톤에서는 푸짐한 상품과 함께, 성공적인 홍보로 전국에서 1만 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해 메이저급 대회로 진행해 전국 마라토너들에게 알려 '마라톤 도시 진해'라는 이미지도 연중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사관생도 50여 명도 종목별로 참가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며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 중간고사

지난 11월 17일(월)부터 11월 21일(금)까지 해군사관학교 생도총원을 대상으로 한 중간고사가 진행되었다.

사관학교의 시험은 기본적으로 논술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의 재량에 따라 기입형, 객관식 문제가 덧붙여진다. 이번 시험은 3개 학년별, 각 과별 시험으로 진행되었는데 평가는 교반별 상대평가로 예사까지의 등급이 배분된다. 최종 성적은 11월 24일부터 해사 종합 정보 체계에 게재되었다.

이번 중간고사에서 생도 모두는 각자의 능력을 시험하는 기회로 삼아,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 동코트 착복의식

11월 28일 금요일 비상소집훈련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1학년 생도 137명이 해군사관학교 육포관에서 동코트 착복의식을 했다.

이번 해에 처음으로 실시된 동코트 착복의식은 강한 추위 속에서 연대장생도를 비롯한 연대 참모생도와 함께 바다 속에서 추위를 버티는 육포관의 의식과 함께 실시하였다. 이 의식의 목적은 사관생도 하야금 동코트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데에 있었다. 동코트는 동계철 외투의 기능과 함께 멋과 자부심 함양에 도움을 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육포관의 의식에 해군기와 교가 등을 제정하며 해군사관생도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정리 : 3학년 남경모 기자생도

社說

굴강에서 배운다

굴강이 우리에게 보다 의미 있는 것은 이순신의 명령으로 나대옹이 이곳에서 거북선을 건조하고 수리했다는 사실이다.

해사에서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을 길러내어 대양해군의 역군이 되게 하는 것도 굴강과 해사가 닮은 점이다.

전라도 순천부 선소(船所)마을(현 여수시 시전동)에는 고려시대부터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었다. 조선 성종(1470년) 때는 선소에서 관옥선과 같은 전선들을 건조하고 수리를 했다. 선소의 중심부에는 굴강(屈江)이 있는데, 굴강이란 배를 피항 시키거나 긴급히 출항하기 위해 만든 동근 구조물이다. 선조들의 지혜가 응집되어 나타난 곳 이 바로 이 굴강이다. 직경은 대략 40m, 길이는 5~6m 정도였다. 수군의 중요 군사시설이었던 굴강은 방파제의 역할도 하고 선착장의 역할을 함께 수행했다. 가까운 안골포에도 굴강이 남아 있다. 굴강이 우리에게 보다 의미 있는 것은 이순신의 명령으로 나대옹이 이곳에서 거북선을 건조하고 수리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해군은 지난 10월에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관함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우리는 독도함과 이지스함, 214급 잠수함들을 선보이면서 중진국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강대국들로부터 미래의 동반자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이제 우리 해군은 명실 공히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위상을 크게 높였고, 국내적으로는 대한 강군의 자부심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1945년 출발한 해방병단부터 시작하여 우리해군이 지속적으로 내실을 다진 결과였기 때문이다.

이제 2008년을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의 화두를 내일로 설정해본다. 그동안 우리는 외적인 면을 더 중시할 측면이 있었다. 절식을 하면서 손님들

을 더 잘 대접해 주려고 했고,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우리 식구들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역량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고 우리를 역량 이상으로 크게 자랑하고 싶었던 욕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축소 선택하여 과감하게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첫째,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 우리는 정체성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우리 자신의 임무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 거시적이면서 세부적인 점검을 통해, 해군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해사는 군 조직이지만 교육기관임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하고 실력 있는 장교들을 양성하는,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한마음 정신으로 구성원들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흔히 구성원들이 소수이면서 다양할 경우 부정적인 효과는 극대화되고 긍정적인 효과는 소멸되기 십상이다. 우리는 분산적이고 개인적인 행태보다 한마음 정신으로 상호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로, 구성원들이 지닌 능력들이 몇 배나 증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원부서의 업무 능력과 생도들에 대한 지원책은 수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교수들에 대한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 사실 지금까지 교수들을 관리해 왔던 그들이 강의를 준비하고 연구에 매진하도록 지원하고 배려하는 데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지역적 고립과 군 교육기관으로서 받는 제약 요인들을 상쇄할 만 한 지원책이 다소 부족했다. 일반대학을 추종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지닌 장점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100여명의 교수진이 포진한 학교의 능력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연구소가 한 두 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수들이 강의준비와 연구에 전념할 경우, 그 성과는 고스란히 장교양성교육으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해군사관학교는 선소의 굴강과 같은 곳이다. 방파제와 선착장의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굴강처럼 장교양성과 학사배출이라는 두 기능을 하는 것도 굴강의 역할과 꼭 같다. 함선들이 수리를 필요로 하거나 풍랑을 피하는 곳이 굴강이었듯이, 대양에서 소진된 능력을 재충전하기 위해 일부 교수들이 해사로 오는 것도 비슷하다. 굴강에서 창조적인 거북선을 건조하여 임진왜란에서 승리했듯이, 해사에서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을 길러내어 대양해군의 역군이 되게 하는 것도 굴강과 해사가 닮은 점이다.

자타가 공인할 때까지 내실을 다져 키우는 일은 힘들고 지루한 작업을 전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시기를 단결로 극복하는 저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2009년에는 해사가 굴강과 같은 역할을 기능을 회복하기를 기대해 본다.

한마음으로 달리는 2009년을 위해

2008년 연말,

해사는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중령 김 용(학보주관)

겨울바다 바람이 세찬 2008년 연말, 해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들의 4주간의 동계휴가 기간이다. 사관생도들은 비록 없지만, 사관생도 교육훈련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장교 및 군무원, 수병들의 움직임은 매우 활발하다. 한마음으로 달리는 2009년을 준비하면서 2008년의 12월을 특단의 달로 설정하고, 한마음 갖기 운동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시행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장을 비롯하여 지휘부 및 주요 부서장, 학적장들이 대폭 교체된 상황에서도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해군사관학교는 연말을 맞아 전 해군에서 추진 중이며, 많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한마음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학교장 최윤희 중장은 사관생도 생활 체계를 위해 사관생도들의 동계휴가 실시전인 지난 12월 2일부터 이틀간 생도사에서 동숙을 실시했다. 사관생도들과 석식을 함께하고, 야간 비상소집훈련에 함께 참여하며 10킬로미터 이상을 30년 이상 후배들과 나란히 구보하며 땀을 흘렸다. 학교장은 생도들의 생활관인 세병관에서 하룻밤을 잔 뒤, 아침 점호에도 참여함으로써 사관생도 생활체결 일정을 마쳤다. 이밖에도 사관학교의 주요 지휘관들의 현장 중심 체현은 이어졌다.

12월 8일부터 일주일간은 근무지원단장, 헌병대장, 기무반장, 주임원사 등이 수병 합동생활관과 해안 경제초소에서 동숙하며 생활체결을 실시했다.

또, 2008년 한 해에는 사관학교에 새로이 부임하는 교수와 훈육요원, 부서장 및 참모실대장들은 의무적으로 사관생도 생활체결을 1박 2일 일정으로 총원 실시 한 바 있다. 해군사관학교의 이런 활동은 '상하동유자(上下同欲者)'가 돼 사관학교에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자는 한마음 갖기 운동의 취지를 심분 살린 것이다.

해사는 이와 함께, 학교장의 특별 지시로 연말연시 교직원 격려 행사를 계층별 간담회와 군 기강 확립 워크숍으로 12월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다.

계층별 간담회와 격려를 이병부터 시작하여 병장까지 수병들을 세분화하여 학교장과 부서장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육활동, 간담회, 격려만찬 행사로 실시했다. 또, 간부들은 군무원, 영관장교, 위관장교, 준·부사관 등으로 세분화하여 12월 22일부터 군기강 확립 워크숍과 격려만찬을 교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간부대상 모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군무원들에 대한 배려이다. 그동안 사관학교에서 계층별 간담회나 격려 행사 등에서 군무원들의 모임은 5급 이하 군무원과 4급 이상 군무원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4급 이상 군무원들은 대부분 교

수요원이어서 영관장교들과 합류해서 실시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장 최윤희 중장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교내에서 근무하면서 근무원이라는 신분으로 함께 모임 수 있는 기회를 처음 제공한 것이다. 사관학교의 특성상 기능직에서부터 사관생도들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다양한 근무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근무원 상호간의 교류가 단절되고, 함께 근무하는 동질감을 가지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감안한 이번 계층별 워크숍과 격려행사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다. 모두가 정에 호국간선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사관학교에서 수고하는 근무원들이라는 한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학교는 또, 당직근무 기강 확립이 군 기강 확립 특단의 달인 12월 한해의 주요 과업 중 하나로 보고, 교내 당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사관학교의 특성에 따라 그동안 체육관, 학술정보관, 산림순찰 등 자체적으로 당직명령을 시달하는 체계를 교내 일일명령으로 통합 시달하도록 했고, 당직 열외자가 없도록 고참 기수의 장교와 남·여 군무원을 포함하여 해사 교직원 총원이 당직근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월 11일 학교장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계층별 대표들의 의견을 100%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학교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당직근무가 실질적이며, 규정과 절차에 맞도록 제도화하였고, 당직 근무기강에 있어서도 휴일 등에 특별히 중요사항이 학교장에게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당직근무자의 보고체제도 개선하였다. 이로써 정문에서부터 분청 당직실, 휴일 방문객에 대한 안내당직까지 일사불란하게 정립돼 해군사관학교의 기강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해군사관학교의 연말행사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학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주고, 사관생도와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장병 및 군무원들에게는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해사인 총원이 한마음으로 더욱 결속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힘차게 나아가며, 기축년 2009년 새해의 문을 활짝 여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美·英·日 해사방문

사관생도들이 외국 사관학교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가져

사관생도들이 외국 사관학교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미(美), 영(英), 일(日) 사관학교에서 그들의 생활을 체험하였다. 미국을 방문한 생도는 볼티모어에 있는 아나폴리스의 United States Naval Academy(USNA)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을 이끌어 나갈 예비 장교들과 생활하며,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접했다. 영국의 해군대학 생활을 체험한 생도들은 대영제국, 해가지지 않는 나라 등으로 불릴 수 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인 영국의 Royal Navy, 즉 영국 해군을 양성하는 해군대학에서 영국 해군의 자부심을 느꼈

으며 우리 생도들도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방위대에서 방위대생들과 생활을 통해 해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생활에 있어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고학년의 모범적 솔선수범이라는 것을 배웠다. 생도들은 미·영·일 해사방문을 통하여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접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회를 가지게 해준 해군사관학교와 동기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관원기사 5면〉**

정훈공보실 9급 박정기

학술정보관 지킴이 생도 독서전학 실시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선진도서문화를 경험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선진도서문화를 경험하고자 추진된 독서전학이 11월 21에서 23일까지 실시된 수요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해당자는 올해 처음 생긴 학술정보관 지킴이 생도들로서 생도들의 활발한 독서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한다. 지킴이 생도들은 첫 일정으로 국회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국회도서관에는 98만 여권의 논문자료가 구비되어있으며 최근 2년의 자료들을 주로 배치할 만큼 각종 분야에 방대한 자료가 있었다. 생도

들이 특히 눈여겨 본 것은 2층에 마련된 갤러리 공간이었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하는데 봄에는 벚꽃축제 작은 음악회를 열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해 냈고 얼마 전에는 독도특별전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교보문고에서 추진 중인 독서경영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해 광화문으로 향했다. 책 읽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생도들에게 책 읽는 근대 만들기에 동조할 수 있게 하였다. 창조력에 바탕을 둔 지식의 공유를

위해 독서가 필요함을 공감한 지킴이 생도들은 활발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다음 날에는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과 칼 전시회를 둘러보았다. 일반 대학생들의 도서문화를 둘러보고 동아시아 삼국의 기와 예를 느낄 수 있는 관람이었다.

지킴이 생도들은 훌륭한 기록문화를 남긴 우리 조상들의 혼을 느낄 수 있는 규장각을 끝으로 독서전학을 뜻 깊게 마무리하였다.

1학년 고은수 수습기자생도



2008년 12월, 또 다시 한해의 마지막이 왔다. 항상 마지막에는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따르듯,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성과 다짐을 한다. 반성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언행이나 생각에 대하여 그 잘못이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스스로 돌아켜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1년이란 시간이 모두 돌아보기에는 기억 용량의 부족으로 불가능 할 것 같고,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들의 생도 생활을 돌아 보자.

2008년과 함께 맞이한 학년의 진급, 이제 소위로 진급하기 위해 치러지는 62기생들의 응모 행사를 무사히 치러 내며 1학년은 2학년으로, 2학년은 3학년으로 각각의 학년이 진급을 하면서 63,64,65,66기 생도들은 새로

운 마음으로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학년으로서 생도생활 시작했다. 그리고 4월,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서 가졌던 일주일간의 행군. 제주도민들에게 해군을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확립하여 기동함대의 전초기지 가 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향기로운 유채꽃밭과 부서지는 파도를 옆에 두고 가졌던 그 시간들은 무거운 완전 무장의 기억보다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이 더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다.

5월, 여자친구 또는 애인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인 우리 해사의 아름다운 풍경과 시설의 깔끔함. 학교의 입구서부터 그

모습들을 보며 놀라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진작 해군사관생도 생활이 이처럼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드렸다면 걱정을 한 시름 덜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던 기억이 있다.

대한민국의 열혈 젊은이들이 다시 만난 7월, 각 군의 사관학교에서 1, 2, 3학년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모여 가졌던 그 소중한 시간에 서 우리들은 언제나 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서로의 꿈을 나누었다.

꿀맛 같던 3주간의 하계휴가가 지나고 시작된 각 학년의 군사실습. 3학년 생도들이 대양해군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은 연안실습. 2학년 생

도들이 해양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해군 특수전에 경험을 가진 특수전 실습. 해군 작전에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해병대를 이해 하기 위해 가진 1학년 생도들의 지상전 실습이 있고, 12월 24일 부산항에 임항을 앞두고 마지막 힘찬 뱃고동을 울리고 있는 4학년 생도들의 원양 실습까지...

2008년의 9월은 64, 65기 생도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달이 될 것이다. 65주년을 맞이한 국군의 날 행사와 그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 한복판에서 가진 시가지 분열. 그 아름다운 한 순간을 위해 피땀 흘린 해군사관생도들의 한 달이 전 국민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깊이 남아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름다운 단풍과 생도들을 내적외적으로 더욱 강하게 해줄 옥포만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거세지는 11월과 그리고 12월이다.

2008년 한해를 돌아 보았다. 반성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진다. 그래서 한해를 돌아 보았다고 표현하고 싶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나 자신에 대한 책망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해본다.

보통 계획을 짜는 사람들을 보면 새해가 되면, 신년에 들어 계획을 짜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 새

해사학보 원고를 기다립니다
napress@navy.ac.kr
(051)549-1063

진리(眞理)를 구하자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맨 처음 암기한 것은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는 학교교훈이었다. 교훈을 처음 대하는 순간 나는 사실 큰 감명을 받지 못했다. 그냥 평범한 내용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거짓말 하지 말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현역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 세월이 지남에 따라 교훈의 참뜻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첫 번째 교훈인 “진리를 구하자”는 우리 해사인들이 해군과 해병대 장교로서 조국을 위해 헌신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현역은 물론 전역 후에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다.

“진리를 구하자”는 얼핏 보면 개념적이며 가슴에 확 잡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경륜이 쌓일수록 진리의 심오한 뜻이 더욱 마음에 와 닿는다.

사전적 의미에서 진리란 세상의 참된 이치를 말한다. 세상의 참된 이치에는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대별하면 인간의 이치, 자연의 이치, 사회의 이치가 있으며 진리를 구하는 것은 이러한 이치들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인간의 이치란 무엇인가

서양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를 영웅으로 생각해왔다.

그가 영웅으로 대접받는 이유는 진리탐구에서 끝없는 열정을 갖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통하여, 예수는 교행을 통하여, 그리고 부처는 깨달음을 통하여 진리를 추구했다. 그들이 추구한 진리의 목표는 옳고 그름, 즉 선(善)과 악(惡)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쌓는 일이었다.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인 플라톤 역시 진리추구의 목적이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임을 성

찰하고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 라고 하였다. 플라톤이 아테네에 세운 “아카데미아”는 미래의 국가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그가 만든 학교다. 우리의 해사와 같다. 그는 미래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에게 올바름을 교육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다. 그의 열렬한 팬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아카데미아”에서 수학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인간은 진리를 통하여 선, 악을 구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개인의 사상과 행동이 공동체의 선(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이치이며 교육의 목표다. 생도 생활 4년 동안 통해관 교육, 무감독시험, 과실보고, 각종명예제도, 군기훈련 등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우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자연의 이치를 모르면 인간은 자연을 두려워하고 외면하게 된다. 15세기까지 인류는 지구가 둥근지도 태평양이 있는지도 몰랐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바다는 세계로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마젤란이 3년 동안의 항해 끝에 세계일주항해를 성공함으로써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세에 신학과 과학의 가장 광활한 논쟁은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인가 태양인가에 관한 싸움이었다. 종교와 과학이 충돌한 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정지해 있으며 태양과 달이 지구 주위를 움직인다는 천동설을 주장하였다. 교회도 이를 승인했으며 이에 반하는 논리는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 이를 부인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다. 태

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그 당시로는 천지개벽할 놀라웠다. 그도 그럴 것이 2000년을 지배해온 이론을 하루 아침에 뒤집으려니 누가 이런 진리를 믿으려 했겠는가.

인류는 코페르니쿠스의 등장 덕분에 자연의 올바른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가 일생을 바쳐 완성한 태양 중심의 우주론은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에게로 이어져 근대과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인류문명을 더욱 밝게 하였다. 자연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은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며 진리를 찾는데 머물지 않고 자연을 이용하여 인류문명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이치를 깨닫기 위하여 해사에서는 천문항해, 지문항해, 대수와 기하 등을 공부하고 또 그것은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연과 과학의 이치를 많이 알아야 첨단 이치시화도 학습해도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이치를 알아야 한다

고대에 국가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은 어떤 국가 형태와 사회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국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 심하였다. 이에 용감히 뛰어들어 사람이 플라톤이다. 그의 이상적인 국가는 지식과 정신을 으뜸으로 하는 국가였다.

고대 로마가 1000년의 영광을 누렸던 것은 오늘날의 의회에 해당하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집단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기원전에도 리키니우스-세스티우스 법을 제정하여 평민들도 원로원에 갈 수 있고 귀족과 평민의 결혼도 허용하는 파격적인 사회제도를 만들었다. 귀족의 여성이었던 원로원을 평민들에게도 개방하고

패전국의 국민들에게도 로마시민권을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로마의 힘이었다.

중세에 들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어떠한 사회제도가 경쟁력이 있고 국가에 부(富)를 가져오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올바른 사회의 이치를 가장먼저 이론 나라는 영국이었다.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은 사회구조를 바꾸었다. 의회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사회제도가 생긴 것이다. 프랑스에서 루이14세가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며 “집(朕)이 곧 국가”라고 했을 때 영국의 존 록크는 천부인권설을 내세우며 주권재민의 기반을 마련했다.

영국에서는 국민이 국가를 이끌었고 국왕은 더 이상의 실권자가 아니었다. 영국은 이로서 경제발전과 산업혁명을 이룩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2세기 동안 세계를 제패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세계의 최강국이 되었다. 미국인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출신 대통령 오바마를 선택한 것은 미국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미국을 잘 살게 하는데 흑, 백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것이 미국적 실용이며 올바른 사회의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해군과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해사관료들이 올바른 사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진리탐구는 국가를 위함이다

독일의 계몽사상가인 임마누엘 칸트는 “알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라”고 하였으며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렇듯 세상의 이치에 대한 앎은 그 대상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무엇에 대하여 알면 그것을 지배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힘이 되



前 해사교장 윤 연
(예. 중장, 칼럼니스트)

맺는말

생도생활 4년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고준대로 생활해야 한다. 진리를 구하기 위해 부단히 공부하고, 마음속의 허위를 버리며, 국가와 부하를 위한 희생정신을 닦아야 한다. 옥포만과 망해 봉에 이 한 몸을 던져야 한다. 그래야 멋진 해군, 해병장교가 될 수 있다.

세상 모든 약의 근원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생도생활 4년은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기간이다. 누가 더 많은 땀과 눈물을 쏟아 붓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졸업 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리를 구하는 것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해군과 조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해사인은 진리를 구하기 위해 평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조국을 구하고, 해군장교의 상징인 멋진 신사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에 대하여 알면 그것을 지배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힘이 되는 것이다.”

30년만의 해사방문

지난 오월 하순 5주간의 이태리블란서 출장준비로 여념이 없을 때 서울대학교 독문과 고원 교수(65차)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해군사관학교 교관출신 서울대 교수들이 칠월 중순에 일박이일간 해사를 기념방문 하는데 동행하자는 것이었다.

1981년 7월 31일 전역신고를 마치고 퇴근 버스에서 내 눈에 깊이 담겨있던 해군사관학교, 30여년간 내 마음의 언저리에 남아있던 그 해사에 이제야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것이었다.

유럽 출장 도중 로마와 빠리의 뒷골목을 거닐 때 해사에서 보던 4년간의 기억의 단편들이 하나둘씩 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블란서의 땅끝 마을 브레타뉴 지방의 한적한 바닷가에서 학회 동료들과 10km 달리기를 할 때는 사관후보생 훈련시 힘들게 구보하던 합대사령부와 진해시의 거리를 그려보았다. 차가운 켈트 해 바다에서 뿔뿔 털며 해염칠 때는 해사생도들이 가입교한 겨울날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옥포만의 바다가 생각났다.

1977년 나는 66차 달간의 66차 사관후보생대 훈련을 마치고 해군소위로 임관하였었다. 그리고 4년간 해군사관학교에서 수학관으로 근무하였다. 처음 부임했을 때는 해사 34기가 2학년이었는데, 그해부터 전역할 때까지 34~39기 생도들에게 미적분, 응용수학, 선형대수 등을 가르쳤다. 젊음의 패기가 넘치고 앞날의 꿈이 무르익던 내 청춘의 소중한 4년을 진해시 영국동 해군사관학교에서 보낸 것이다.



유럽에서 귀국한 후 나흘째 아직 시차 적응을 힘들게 하고 있던 날 나는 해사 교관출신 서울대 교수 14명과 김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해공항에는 해사 교학처장 류재현 대령이 마중 나와 있었다. 그는 우리의 해사 방문 일정을 매우 치밀하게 추진하였으며, 항상 웃는 표정으로 일행을 인도하였다. 류대령이 쓴 근무모는 우리가 써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것이라 인상적이었다.

김해에서 마진고개와 진해시를 거쳐 드디어 해군사관학교에 도착하였다. 입구를 지날 때 일행을 태운 소형버스에는 마지막 한 탄성이 이어지고 있었다. 해사 입문당직을 썼던 위병소와 이인호 소령 동상이 오렌 친구처럼 우리를 맞아주었기 때문이었다.

곧이어 우리는 교장님을 접견하였다. 해사소개 영상으로 보고들은 해사의 현황은 30년 전의 사관학교와 큰 차이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력이 많이 신장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해사생도의 입학성적이 서울대 연고대생들의 수준과 같다는 말로부터 현재 해사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이어서 생도사로 옮겨 생도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교수 두 명씩 생도들과 한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며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졌다.

배고팠던 사관후보생 시절 근대 밤을 좋아하던 나에게 이날의 생도음식은 오랜만에 맛보는 선전이었다. 식사시간이 더 길었다면 생도들과 더욱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리라.

이후 우리는 교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자 준비해온 제목으로 생도들에게 한 시간씩 강연하였다. 내가 준비한 비누방울의 수학이란 내용에 관심있는 생도들이 시인 강의실에서 나는 OHP 화면을 보여주며 27년 만에 다시 해사생도들을 가르치는 기쁨을 누렸다. 많은 생도들은 처음 접하는 수학에 호기심을 보여줬고 일부 생도들은 강연시간을 허송치 않기 위해 강의실 뒤로 가서 경청하였다. 강연을 시작하며 나는 생도들에게 한창 젊을 때 많은 꿈을 키워갈 것을 부탁하였다. 학업과 훈련으로 힘든 생도생활 중 꾸어둔 미래 비전의 꿈을 평생 멋진 삶으로 이끌어 주는 등대가 될 것이라고 나는 말하였다.

내가 강연을 한 곳은 통해관 1층 현관 왼쪽 첫 강의실인데 바로 옆방, 현관 왼쪽 교관실이 바로 30년전 내가 근무하던 곳이었다. 이 교관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도들이 아침에 통해관으로 절도있게 행진해오는 모습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그 당시 나와 같이 교관실을 쓰던 해사 24기 조덕은 소령(미 해사 위탁교육 수료)은 생도들의 이런 행진 모습에 감동을 받는다고 말하고 하였다. 이 교관실은 내가 젊은 시절의 꿈을 키워가던 곳이었다. 여기서 나는 장차 아름다운 수학정리를 증명할 꿈을 꾸었고, 감명 깊은 책을 읽으며 맛있는 글을 쓰는 꿈을 품었다. 해군시절의 꿈은 내 삶의 등대빛이 되어 오늘도 내 학문인생을 비취주고 있다. 그런데 이 통해관이 올해 말 철거된다고 하니 이번 방문에서 해사의 역사적 건물을 마지막으로 찾아본 것은 다행이었다.

강연 후 우리는 함대로 이동하여 대조영함을 견학하였다. 2차대전 당시 미 해군이 썼던 구축함과 LST에서 교육을 받던 우리에게 길이 150미터급 4,500톤급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러나 대조영 함에 근무하는 수병, 하사관, 장교와 함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옛 해군가족의 친밀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이 구축함을 떠나며 나는 훈련 시 부러웠던 군가 '앵커송'의 분위기에 젖어보았다.

해사로 돌아온 우리는 연병장에서 63기 12차 연대 근무교대식을 지켜보았다. 아울러 서울대 교수 환영행사와 심명보 제독의 전역식을 한 후 드디어 생도들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1977년 이 연병장에서 66차 사관후보생 임관식의 분열에 나는 직접 참여했고 그 이

후 매년 해사 졸업식 때마다 분열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날 단상에서 본 해사생도 분열의 감흥은 달랐다. 7월의 피약별 아래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위에서 군악대의 해군가에 맞춰 각 중대가 생도다운 절도와 힘이 넘치며 행진하던 분열은 한마디로 보는 이의 가슴을 몽글하게 하였다. 매년 봄 진해시에 만발하는 벚꽃은 자연이 공들여 피우는 아름다움이라면, 옥포만 연병장에 펼쳐지는 분열은 해사생도들이 땀과 정성으로 피우는 아름다움이었다.

저녁 때 우리는 해사의 여러분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다. 교장님의 주도로 약주를 들며 각자 한마디 씩 하였다. 부친과 남동생, 조카 3대가 해사동문인 소비자자동차부 여정성 교수는 우리의 해사방문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던 지난 몇 년간의 경과를 얘기하였다. 언어학과 권재일 교수는 매일 출근길에 해군군가 CD로 군가를 들으며 운전한다고 색다른 토로를 하였다. 감동받은 좌중은 그의 애정 글씨 해양가를 따라 불렀다.

화학부 김희준 교수는 훈련 중 기수구보를 할 때 몇몇 사관후보생이 도중에 쉬었던 게 드러나 다음 날 총원이 다시 기수구보한 얘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나는 해사 근무 4년째 대위 진급 후 이번 방문에 동행한 동생 전기공학부 박영준 교수의 동생과 결혼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소위 때 배운 가요 '연안부두'를 호기있게 부르기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가사가 생각나지 않아 애를 먹었다.

옆자리의 해사 사회인문학처장 이승렬 교수와 한창 얘기를 하던 중 그가 내 미적분 수업에 들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서로 매우 반가와 하기도 했다. 그리고 윤영식 부교장님과 자리를 함께 하여 30여년 전 두 생도에게 일어난 사건, 당시의 생도대장 등에 관해 기억을 되살리며 즐겁게 얘기를 나누었다. 또한 해사 교수부의 발전방안에 관한 계획도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그날 밤 최신 시설의 생도사 한 방에서 동기생이었던 심리학자 이훈길 교수와 30년 전 가르치던 얘기를 서로 나누며 해사에서의 첫 밤을 맞이하였다. 이튿날 사차 때문에 일찍 깨서 뒤척이다가 5시 45분 각 방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구령소리를 들었다. “생도 총기상, 망해봉 훈련 15분 전.” 곧 이어 생도사에 울려 퍼지는 기압소리는 생도들이 기상하는 소리이리라.

조금 후 망해봉으로 떠난 생도들은 30여 분 후에 돌아왔다. 이때 내 방 창문으로 생도들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투복 차

림에 K2 소총을 자유롭게 들고 삼삼오오 오순도순 얘기하며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였다. 여기저기 여생도도 보였다. 복장과 소총만 뺀다면 서울대학교에서 보던 학생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생도들은 학업뿐 아니라 저렇게 수시로 훈련에 임해야 할 것이고, 임관 후 명령에 따라 동서남해 각 곳에 군함을 타고 출동을 갈 것이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 시에는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윤영호 소령 못지않게 용감하게 해전에 앞장서리라. 생도사 1층 명예홀에 위치한 윤영호 소령의 금빛 흉상을 보며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뒤늦었지만 정무가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회식 자리에서 해사는 삼군 사관학교 중 에서 가장 센 훈련을 받고 있다는 익히 알고 있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번 방문 중 읽은 해사학보에서 한 여생도가 호주 국방사관학교 생도들의 자율활동을 부러워하는 것을 눈여겨 읽어보았다. 최근 훈련과 자율활동을 어느 정도 배합해야 최강의 생도를 키워낼 수 있는가? 이것은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날 오전 우리는 네 그룹으로 나누어 취미활동에 참여하였는데 나는 일곱 명의 교수와 함께 요트를 탔다. 생도 특별활동용의 꽤 큰 이 요트는 잔잔한 해사반도를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수영훈련 할 때 반환점이 되는 무인도를 지나 요트는 진해만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넓은 바다로 멀리 나가기 해사 통해관, 연병장과 생도사는 저 멀리 조그맣게 보이고 함대도 가물가를 보였다. 산들산을 부는 바람을 뚫어 뚝뚝 담아 요트는 거칠어지는 바다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파도 따라 흔들리는 요트 뱃머리에 앉아 여름 햇빛을 듬뿍 받으며 함대, 해사, 천지봉을 한참 음시하다 보니 어느덧 과거 해군의 모습들이 내 눈앞에 주마등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손원일 제독이 미래 해군을 설계하던 모습, 이인호 소령이 해병훈련을 키워 가던 모습, 지덕철 중사가 사격훈련을 하던 모습, 최재경 대위가 진리의 바다 항해준비를 하던 모습, 윤영호 소령이 희생정신을 배워가던 모습이.. 지난 60년간 진해를 거쳐 간 모든 장병의 해군시절 시공간의 편린들이 작은 물결이 되어 진해만 바다를 떠나고 있었다.



고등과학원 교수 최재경
(OCS 6671)

“1977년부터 4년간 34~39기 생도들을 가르쳤다. 젊음의 패기가 넘치고 앞날의 꿈이 무르익던 내 청춘의 소중한 4년을 진해시 영국동 해군사관학교에서 보낸 것이다.”

필자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2006년 고등과학원으로 옮김.

전통이 살아있는 미해사

- 미국 해군사관학교 방문기 -

6중대 3학년 김지훈 생도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이라 하면 아마 세계를 주름잡는 초강대국, 다민족이 어울려 사는 국가, 광활한 토지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과 같은 것들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의 신분은 해군사관생도여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하면 나에게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지닌 것에 대한 부러움이 먼저 생긴다. 광활한 토지를 영유하고 다민족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며 세계를 주름잡는 초강대국의 기반은 아마 강력한 군사력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을 이끌어 나갈 장교들을 배출하는 United States Naval Academy, (이하 USNA)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기회가 주어질 것은 나에게 있어 정말 큰 행운이었다.

12,000여 KM를 이동하여 도착한 미국 땅은 나에게 낯설게 다가왔지만 Baltimore 공항에 마중 나온 KAMA Club(Korean-American Midshipman Association) 생도들이 우리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USNA로 향할 수 있었다. 나의 매칭 생도는 Darius Mercer (한국명 김유진)이었다. 유진은 83년생으로 아버지는 미국 공군에서 근무하시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의 군산과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살다가 7살 때 미국으로 왔으며 잡수사 사병(enlisted man)으로 근무하다가 접수할 장교가 되기 위해 사관학교를 지원한 생도였다. 유진의 서투른 한국어와 그 얼굴에서 살짝살짝 비치는 한국인의 모습이 서로를 금방 친해지게 해 줄 수 있었다. 유진의 안내로 나는 머무는 동안 학교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닐 수 있었다.

약 6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USNA의 첫인상은 학교를 떠날 때까지도 이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오랜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느낌이었다. 100년도 더 지난 건물들이 수두룩하고 새로 지은 건물들도 옛날의 양식 그대로 조화롭게 지어진 곳, 모든 건물의 이름은 큰 업적을 남긴 선배 위인들의 이름을 따 그 업적을 기리고 분열복장에 있어서도 육, 공사와는 달리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옛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 등 학교의 구석구석에서 오랜 전통이 느껴지는 것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생도사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참 신선한 느낌

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 중에 인상 깊었던 기억을 더듬고자 한다.

아래의 사진은 Bancroft Hall의 중앙 입구이다. Bancroft Hall, 즉 미 해사의 생도사는 4400여명의 생도를 수용할 수 있는 1837개의 객실과 4.8mile(7.7km) 길이의 복도로 구성된 단일 기숙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정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우리학교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단지 다른 것이라면 우리학교에서 대대당직실이 위치하는 쪽의 튀어나온 건물을 그곳에서는 Wing이라고 하는데, 1세대, 2세대 총 2개의 Wing을 갖춘 우리보다 6개 많은 8개의 Wing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대규모의 건물이 1901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유지와 보수가 생각보다 잘 되어있어 놀라웠다.

가운데 입구로 들어가면 The Rotunda(동근 지붕의 원형 건축물)를 지나 Memorial Hall이 위치한다. 웬지 모를 엄숙한 분위기가 풍기는 가운데 James Lawrence의 "Don't Give Up The Ship"이라는 유명한 문구가 판에 새겨져 있다. 그 아래엔 졸업생(Alumni) 중 나라를 위해 명예롭게 싸우다 전사한 것을 기린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으며 밑의 탁자에 가까이 가보니 우리 안에는 졸업생 전사자의 이름과 기수, 전쟁 및 전투의 이름까지 나와 있었으며 그 수도 상당했다. 미 해사생도들은 항상 이곳에선 엄숙하게 정숙을 유지하며 다녔고 많은 외부 방문객들도 와서 조의를 표하고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특히 더욱 놀라웠던 것은 우리로 치면 '충무공 이순신' 정도의 추앙을 받는 미 해군의 전설적 위인인 'Jone Paul Jones'의 관이 Chapel(예배당)의 지하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었다. 1905년에 프랑스에서 관을 찾았는데 그 땅 위에 빌딩이 세워져 있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명령하여 빌딩을 허물고 미국으로 가져와 USNA에 안치함으로써 생도들이 전설적인 해군 위인의 호국정신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학교를 돌아다니면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이름을 새긴 현관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 종류에는 위에 보았던 졸업생 전사자 명단이나 졸업생 기부자 명단, 그리고 옆의 사진과 같이 각종 스포츠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생도들 명단들이 있으며 이 현관에는 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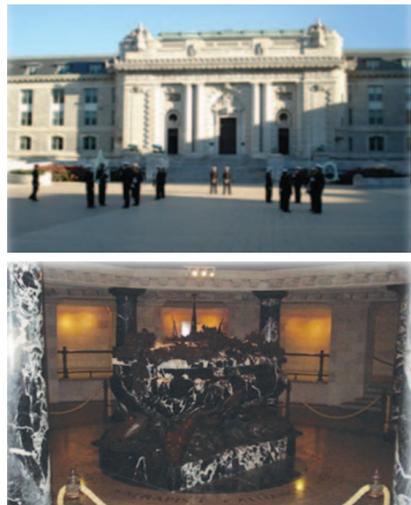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기수와 이름, 종목이 기록되고 있어 선배 생도들의 업적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미 해사생도들이 여기에 기록되는 것을 상당한 영예로 삼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것이었고, 이는 그들이 학교 대표선수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었다.

Herndon Monument 탑이 유명한 것은 1학년 생도가 2학년 진급 시에 꼭 통과해야 할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 의식 때는 탑 전체에 그리스를 듬뿍 바르고 꼭대기에 2학년 모자(정모)를 올려놓아 1학년들이 일치단결하여 자신들의 모자(수병모자)를 올려놓고 정모를 가져와야 한다. 탑에 September 12th, 1857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식이 이때부터 시작되어 10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는 학교의 전통이었다.

그리고 분열 복장에 있어서도 옛날 그대로를 따라서 옛 우리 학교 복장과 비슷하였고 충도 최선이 아닌 길이 나무로 된 옛 총을 사용한 것도 눈에 띄었다. 그 아래엔 졸업생(Alumni) 중 나라를 위해 명예롭게 싸우다 전사한 것을 기린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으며 밑의 탁자에 가까이 가보니 우리 안에는 졸업생 전사자의 이름과 기수, 전쟁 및 전투의 이름까지 나와 있었으며 그 수도 상당했다. 미 해사생도들은 항상 이곳에선 엄숙하게 정숙을 유지하며 다녔고 많은 외부 방문객들도 와서 조의를 표하고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특히 더욱 놀라웠던 것은 우리로 치면 '충무공 이순신' 정도의 추앙을 받는 미 해군의 전설적 위인인 'Jone Paul Jones'의 관이 Chapel(예배당)의 지하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었다. 1905년에 프랑스에서 관을 찾았는데 그 땅 위에 빌딩이 세워져 있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명령하여 빌딩을 허물고 미국으로 가져와 USNA에 안치함으로써 생도들이 전설적인 해군 위인의 호국정신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학교를 돌아다니면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이름을 새긴 현관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 종류에는 위에 보았던 졸업생 전사자 명단이나 졸업생 기부자 명단, 그리고 옆의 사진과 같이 각종 스포츠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생도들 명단들이 있으며 이 현관에는 무려



영해대의 자부심 높은 실전적 교육훈련 체험

- 영국 해군대학 방문기 -

2중대 3학년 석영달 생도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등 많은 대명사로 표현되는 나라, 영국을 다녀오다. Royal Navy, 영국해군을 양성하는 해군대학을 보기 위해 간 것이었지만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신사들의 나라'라는 환상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이화학자 송기훈 교수님을 인솔장교로 모시고 갔는데 여행 내내 우리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시며 돌아올 때까지 불편함 없이 즐겁게 지냈다. 12시간 이상 걸리는 여행 후에 런던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저녁이었기에 영국구관들이 예약해주신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고 여독을 풀었다. 다음날 본격적인 관광에 나섰다. 유럽에서 가장 큰 리치몬드 파크에 먼저 들렀다. 그곳에서 애완견과 함께 평화롭게 걷는 사람들을 상큼한 아침햇살과 만나니 나도 같이 여유를 즐기고 싶었다. 시내로 나가 런던이 한눈에 보이는 관람차, '런던아이'를 보고 런던의 명소인 '국회 의사당'과 '빅벤'으로 향했다. 빅벤은 정말 웅장하고 멋졌는데 길이 나무로 된 옛 총을 사용한 것도 눈에 띄었다. 그 아래엔 졸업생(Alumni) 중 나라를 위해 명예롭게 싸우다 전사한 것을 기린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으며 밑의 탁자에 가까이 가보니 우리 안에는 졸업생 전사자의 이름과 기수, 전쟁 및 전투의 이름까지 나와 있었으며 그 수도 상당했다. 미 해사생도들은 항상 이곳에선 엄숙하게 정숙을 유지하며 다녔고 많은 외부 방문객들도 와서 조의를 표하고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특히 더욱 놀라웠던 것은 우리로 치면 '충무공 이순신' 정도의 추앙을 받는 미 해군의 전설적 위인인 'Jone Paul Jones'의 관이 Chapel(예배당)의 지하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었다. 1905년에 프랑스에서 관을 찾았는데 그 땅 위에 빌딩이 세워져 있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명령하여 빌딩을 허물고 미국으로 가져와 USNA에 안치함으로써 생도들이 전설적인 해군 위인의 호국정신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학교를 돌아다니면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이름을 새긴 현관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 종류에는 위에 보았던 졸업생 전사자 명단이나 졸업생 기부자 명단, 그리고 옆의 사진과 같이 각종 스포츠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생도들 명단들이 있으며 이 현관에는 무려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기수와 이름, 종목이 기록되고 있어 선배 생도들의 업적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미 해사생도들이 여기에 기록되는 것을 상당한 영예로 삼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것이었고, 이는 그들이 학교 대표선수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었다.

Herndon Monument 탑이 유명한 것은 1학년 생도가 2학년 진급 시에 꼭 통과해야 할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 의식 때는 탑 전체에 그리스를 듬뿍 바르고 꼭대기에 2학년 모자(정모)를 올려놓아 1학년들이 일치단결하여 자신들의 모자(수병모자)를 올려놓고 정모를 가져와야 한다. 탑에 September 12th, 1857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식이 이때부터 시작되어 10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는 학교의 전통이었다.

그리고 분열 복장에 있어서도 옛날 그대로를 따라서 옛 우리 학교 복장과 비슷하였고 충도 최선이 아닌 길이 나무로 된 옛 총을 사용한 것도 눈에 띄었다. 그 아래엔 졸업생(Alumni) 중 나라를 위해 명예롭게 싸우다 전사한 것을 기린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으며 밑의 탁자에 가까이 가보니 우리 안에는 졸업생 전사자의 이름과 기수, 전쟁 및 전투의 이름까지 나와 있었으며 그 수도 상당했다. 미 해사생도들은 항상 이곳에선 엄숙하게 정숙을 유지하며 다녔고 많은 외부 방문객들도 와서 조의를 표하고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특히 더욱 놀라웠던 것은 우리로 치면 '충무공 이순신' 정도의 추앙을 받는 미 해군의 전설적 위인인 'Jone Paul Jones'의 관이 Chapel(예배당)의 지하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었다. 1905년에 프랑스에서 관을 찾았는데 그 땅 위에 빌딩이 세워져 있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명령하여 빌딩을 허물고 미국으로 가져와 USNA에 안치함으로써 생도들이 전설적인 해군 위인의 호국정신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학교를 돌아다니면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이름을 새긴 현관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 종류에는 위에 보았던 졸업생 전사자 명단이나 졸업생 기부자 명단, 그리고 옆의 사진과 같이 각종 스포츠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생도들 명단들이 있으며 이 현관에는 무려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기수와 이름, 종목이 기록되고 있어 선배 생도들의 업적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미 해사생도들이 여기에 기록되는 것을 상당한 영예로 삼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것이었고, 이는 그들이 학교 대표선수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었다.

Herndon Monument 탑이 유명한 것은 1학년 생도가 2학년 진급 시에 꼭 통과해야 할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 의식 때는 탑 전체에 그리스를 듬뿍 바르고 꼭대기에 2학년 모자(정모)를 올려놓아 1학년들이 일치단결하여 자신들의 모자(수병모자)를 올려놓고 정모를 가져와야 한다. 탑에 September 12th, 1857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식이 이때부터 시작되어 10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는 학교의 전통이었다.

그리고 분열 복장에 있어서도 옛날 그대로를 따라서 옛 우리 학교 복장과 비슷하였고 충도 최선이 아닌 길이 나무로 된 옛 총을 사용한 것도 눈에 띄었다. 그 아래엔 졸업생(Alumni) 중 나라를 위해 명예롭게 싸우다 전사한 것을 기린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으며 밑의 탁자에 가까이 가보니 우리 안에는 졸업생 전사자의 이름과 기수, 전쟁 및 전투의 이름까지 나와 있었으며 그 수도 상당했다. 미 해사생도들은 항상 이곳에선 엄숙하게 정숙을 유지하며 다녔고 많은 외부 방문객들도 와서 조의를 표하고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특히 더욱 놀라웠던 것은 우리로 치면 '충무공 이순신' 정도의 추앙을 받는 미 해군의 전설적 위인인 'Jone Paul Jones'의 관이 Chapel(예배당)의 지하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었다. 1905년에 프랑스에서 관을 찾았는데 그 땅 위에 빌딩이 세워져 있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명령하여 빌딩을 허물고 미국으로 가져와 USNA에 안치함으로써 생도들이 전설적인 해군 위인의 호국정신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학교를 돌아다니면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이름을 새긴 현관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 종류에는 위에 보았던 졸업생 전사자 명단이나 졸업생 기부자 명단, 그리고 옆의 사진과 같이 각종 스포츠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생도들 명단들이 있으며 이 현관에는 무려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솔선수범의 교풍

- 일본 방위대학교 방문기 -

명예중대 3학년 김장섭 생도

1학년 때, 방위대 유학을 지원하여 최종 선발까지 일본어와 일본에 대해 공부했고 지금은 전공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번 일본 방위대학교 방문은 너무나 뜻 깊은 기회였다. 우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의 각 사관생도들과 일본 방위대학교 학생들 간의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음은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될 교류의 밑거름을 잘 다지고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미흡한 실력이지만 일본어를 통해 방위대학교의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가능해 방위대학교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더구나 한국어로 먼저 다져졌던 방위대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어 다른 생도들 역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데 무리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된다. 또한 에스코트를 해주었던 방위대학 해상 요원 학생들이 우리 해사 생도들과 동숙하며 방위대학교 전반에 대한 것을 많이 알려주어 우리 해사와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같은지 그 문화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선 방위대의 체육부 활동인 교우회의 활동이 매우 인상이 깊었다. 하루에 2시간씩 5일 간 자신들이 소

속되어 있는 클럽에서 활동을 한다. 이 클럽은 다양한 내용에서 우리 학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느껴졌지만 실제 그들의 활동을 접해보니 과거 다 실을 정도로 열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번 정한 클럽은 거의 활동이 4년간 활동하면서 그 활동에서 만큼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클럽 활동에 심취해 있었다. 그렇게 계속 해 온 선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 받으며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며 그 안에서 클럽 구성원들 간의 끈끈한 정을 이어 나가고 있었다. 물론 수많은 방위대 학생들의 다양한 클럽 활동을 위한 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었다. 반면에 클럽 활동이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공부를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적은 것 같지만은 않아 보였다.

학생 내무 생활의 일정에 있어서의 큰 흐름은 우리의 사관학교와 크게 다른 것을 느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 방에 네 명 혹은 여덟 명씩이 각 학년이 섞인 채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지학년 학생들을 고학년이 지도하고 고학년은 지학년 앞에서의 모범을 잘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예를 들면 10시 30분 소동이 나기 전까지는 침대에 눕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4학

년의 경우 편의를 위해 규정을 어기고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기 쉬운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모두 잘 지키고 있는 점에서 솔선수범을 통한 자발적 복종 유도를 읽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 해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생활에 있어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고학년의 모범적 솔선수범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방위대학교에서 지휘체계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점은 대대가 마치 해군 사관학교의 중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방위대에는 4개 대대가 있는데 각 대대가 '기동능력'과 같은 각종 경기의 팀 단위가 되기도 하며, '졸업 100일'은 부분을 차지하여 공부를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적은 것 같지만은 않아 보였다.

학생 내무 생활의 일정에 있어서의 큰 흐름은 우리의 사관학교와 크게 다른 것을 느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 방에 네 명 혹은 여덟 명씩이 각 학년이 섞인 채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지학년 학생들을 고학년이 지도하고 고학년은 지학년 앞에서의 모범을 잘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예를 들면 10시 30분 소동이 나기 전까지는 침대에 눕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4학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기수와 이름, 종목이 기록되고 있어 선배 생도들의 업적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미 해사생도들이 여기에 기록되는 것을 상당한 영예로 삼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것이었고, 이는 그들이 학교 대표선수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었다.

Herndon Monument 탑이 유명한 것은 1학년 생도가 2학년 진급 시에 꼭 통과해야 할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 의식 때는 탑 전체에 그리스를 듬뿍 바르고 꼭대기에 2학년 모자(정모)를 올려놓아 1학년들이 일치단결하여 자신들의 모자(수병모자)를 올려놓고 정모를 가져와야 한다. 탑에 September 12th, 1857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식이 이때부터 시작되어 10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는 학교의 전통이었다.

그리고 분열 복장에 있어서도 옛날 그대로를 따라서 옛 우리 학교 복장과 비슷하였고 충도 최선이 아닌 길이 나무로 된 옛 총을 사용한 것도 눈에 띄었다. 그 아래엔 졸업생(Alumni) 중 나라를 위해 명예롭게 싸우다 전사한 것을 기린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으며 밑의 탁자에 가까이 가보니 우리 안에는 졸업생 전사자의 이름과 기수, 전쟁 및 전투의 이름까지 나와 있었으며 그 수도 상당했다. 미 해사생도들은 항상 이곳에선 엄숙하게 정숙을 유지하며 다녔고 많은 외부 방문객들도 와서 조의를 표하고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특히 더욱 놀라웠던 것은 우리로 치면 '충무공 이순신' 정도의 추앙을 받는 미 해군의 전설적 위인인 'Jone Paul Jones'의 관이 Chapel(예배당)의 지하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었다. 1905년에 프랑스에서 관을 찾았는데 그 땅 위에 빌딩이 세워져 있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명령하여 빌딩을 허물고 미국으로 가져와 USNA에 안치함으로써 생도들이 전설적인 해군 위인의 호국정신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학교를 돌아다니면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이름을 새긴 현관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 종류에는 위에 보았던 졸업생 전사자 명단이나 졸업생 기부자 명단, 그리고 옆의 사진과 같이 각종 스포츠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생도들 명단들이 있으며 이 현관에는 무려



21세기 대양해군의 요람,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2대대장 생도의

글

2008년을 보내고

2009년을 맞이하며 ...

2008년 무자년, 2학년에서 생도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3학년을 시작한 해이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 더 생도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해가 되었다.

동계휴가를 짧게 보내고 학교에 일찍 복귀하여 66기 가입교 조교 훈련을 66기 가입교 제 1보급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후배에 대해, 그리고 후배 지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후배에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2학년의 생활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고, 선배의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 하나가 후배에게는 힘이 될 수도,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아래에는 나를 바라보던 학년이 하나가 더 늘어났고, 그만큼 선배로서의 책임 또한 커짐을 깨달았다.

3학년이 되면서 1학년, 그리고 2학년 때와는 또 다른 생도생활이 시작되었다. 저학년 때 보다 생활의 측면에서나, 심적으로나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있고, 자기개발에 좀 더 노력할 수 있었다. 동기들과 구보도 같이 하고, 취미를 가지고, 여러 분야의 독서를 하기도 하고, 또한 생도, 그리고 군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실무 생활에 대

한 생각을 가져 보기도 하였고, 또한 리더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나는 사관생도라는,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연안실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각 함대와 작전사를 방문하며, 해군의 벽한 미래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1%의 최고의 길을 걷고 있는 해군사관생도, 그리고 해군장교가 된다는 자부심을 다시 한 번 가슴속에 새기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 2학기의 가장 큰 변화는 6기 임시연대 제2대대장생도가 된 것이다. 처음에 대대장생도가 된다고 하였을 때는,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걱정과 고민을 갖게 되었다. 대대장생도로서 대대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생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대대원에게 소속감을 고취하여 생도로서의 자부심을 함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항상 대대를 먼저 생각하면서, 대대장으로서 사관생도다운 모습을 대대원에게 보여 주려 노력했지만, 지금 임시연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하지만 대대장생도의 임무

를 수행하면서 진정한 리더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대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009년은 4학년으로서 생도생활의 대미를 장식해야 한다. 남은 생도생활을 이제 진정으로 즐길 시간이 온 것이다. 동기들과 추억을 많이 만들고, 후배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싶다. 또한 학과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고 특히 영어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중대개편으로 소중한 인연이 시작되었고, 내가 목표로 한 바를 이루지 못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했었다. 3학년이 끝나가서 아쉽긴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2008년을 잘 마무리하고 2009년을 힘찬 각오로 맞이 할 것이다.

8중대 3학년 강지영 생도

1학년을 마치며...

1중대 1학년 남창수 생도

200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났다.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해 세 번째로 본 시험. 처음 접해보는 생소한 과목들이라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는 했지만 많이 부족해 1학기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만족할 만한 성적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 갓 1년 남짓 지났고 많은 과목을 배우지 않았지만,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이 바로 '이걸 배워서 어디 쓰지?' 라는 것이었다. 특히 문과 출신이어서 인지 1학기 때 물리, 화학, 미적 등 이과 과목을 배울 때는 '이게 과연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 필요가 있는 것들일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 흥미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있어 이런 생각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사관학교 입교 후, 바쁜 1학년 생활 속에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목표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2학기에 접어들고 배우는 과목들이 바뀌면서, 그리고 세 번째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잊고 있었지만 이곳, 해군사관학교에서의 공부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아직 세 번의 시험밖에 치루지 않았지만, 전혀 적성에 맞지 않는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가진 생각들을 조금만 바꿔보면 오히려 공부를 하는데 있어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군사학(軍事學)과 전사(戰史)의 경우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단순히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런 분야에 취미를 가지고 재미를 느끼게 된다면, 남보다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되고, 그럼 수업시간 외에도 자기가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사(戰史)의 경우, 인류가 탄생한 이래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투, 그리고 수많은 전략 전술이 있었으나 잘 살펴보면 그것들은 결국 과거에 일어났던 사례를 탐구하고 연구한 끝에 나온 산물이란 점을 생각해 보면 공부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히 생길 것이다. 전사(戰史)를 공부하는데 있어 역사적 배경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 공부도 함께 하게 된다면, 주변국의 군사, 외교, 정치적 동향을 잘 파악해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사례와 연결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해군(海軍)의 경우 그 중요성은 굳이 말로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유럽의 이슬람화(化)를 막아낸 레판토 해전,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시발점이 된 칼레 해전, 태평양 전쟁의 승패를 가른 미드웨이 해전 등 해전은 육전과 달리 단 한 번에 한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역할을 하였다. 해전사(海戰史)를 알게 된다는 것은 곧 바다의 중요성을, 바다가 무대로 활동하는 해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대한민국은 미려한 자연의 원천이 되는 우리 해군사관생도들에게 있어 해전사(海戰史)를 공부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걸 공부해서 도대체 어디다 쓸 것인가?' 라는 생각. 지난 학기 내내 내 머릿속 한 칸을 차지하고 있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길을 찾는 것 같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특히 군사학과 전사(戰史)는 잘 들춰보면 장차 해군 장교로 임관해 실무 생활을 함에 있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하고픈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될 것들이다.

즐기는 자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전사(戰史)나 군사학과 같은 공부를 단순히 공부로 생각하지 않고 흥미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학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해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보는 책 한 권이 인생이라는 항로를 비추주는 캔들라 불빛이 될 수도 있기에,

'08년 진중문에 우수작품 소개

'08년 진중문에 작품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였다. 총180여편의 글, 화화, 서예, 사진, UCC등의 창작품이 응모되었고, 그중 수필과 시부분 최우수작을 소개한다.

» 수필

칸카르데쉬

- 피로 맺은 형제

최우수
2중대 3학년 장형우

2002년 월드컵, 내 인생에 있어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중학교 2학년 이었던 나에게 월드컵 3강 신화는 그저 딱딱한 국민윤리란 낱어만 남아있던 애국심에 대한 개념을 몸과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느끼게 해준 대 사건이었다.

대한민국을 목격지라 외치며, 내 개인의 일이 아닌 나라의 일에 울고 웃었던 그 때, 지금 해군사관생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 때에 자각한 애국심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것 말고도 4강전을 치루었던 터키를 기억한다. 결승의 꿈이 좌절되어서 솔직히 그다지 비중 없이 가슴 졸이며 본 경기기는 아니었지만, 다른 경기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었다. 대형 태극기로 상대편의 분위기를 압도했던 우리 붉은 악마는 같은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경기장에 선보였으며, 경기내내 왼손에는 태극기를 오른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흔들며 댔다. 전쟁을 방불케하는 여타 다른 경기와 달리 매너 있고, 스포츠맨쉽이 지켜졌던 깔끔한 경기였다. 우리나라가 4:3으로 터키에게 패했지만 경기야 끝난 다음터키와 우리나라 선수들은 손에 손을 마주잡고 경기장을 거닐며 관중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였고, 선수들의 아이들까지 그라운드에 나와 한참동안 같이 아우러졌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 대화합의 축제였다. 해설위원들은 터키에게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하는 이유가 바로 터키가 우리나라의 열맹국이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6.25때 미국 때문에 병력인 일만오천명을 보낸 나라가 터키이고 터키는 학교에서 한국을 형제의나라라고 가르친다고 덧붙였다. 수업시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지만, 나는 이 이후로 터키식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것 빼고는 6년동안 터키라는 나라와 인연이 없었다.

그 뒤로 6년뒤 나는 진실한 대한민국의 청년 해군사관생도로 자랐고, 좋은 기회를 잡아 마음 맞는 동기들과 함께 터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다. 여행지를 터키로 고른 이유는 몇가지가 있었다.

먼저, 바다사람으로서 멋진 지중해의 해변을 누리고 싶었고, 크리스천으로서는 성지에 가고 싶었던, 또, 군인으로서는 시오노 나나미의 전쟁 3부작(관토해전, 로도스점공방전, 콘스탄티노플함락전)의 배경이 되는 전적지들과 갈리폴리 상륙작전의 전적지를 직접 가보고 싶었다. 그리스와 터키를 아우르는 내 지중해 여행기는 정말 우

리들의 바램대로 되었다. 뱃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군인으로서의 여행 목표를 다 이루었으니 말이다. 덤으로 한 통기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과 연인관계로 발전했으며, 나도 노르웨이 아가씨와 짧지만 강렬했던 로맨스를 경험했다. 하지만 이런 일 말고도 나는 뜻하지 않게, 터키에서 6년전 2002년 월드컵 때의 기억과 다시 조우했다. 바로 여행지로서의터키가 아닌 형편, 친구의 나라 터키 말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풀어보고자 한다. 여행이 끝나가던 어느 날이었다.

여행의 말미라 돈이 넉넉하지 못했던 우리 일행은 E산 식당을 조달하러 이스탄불 외곽의 외국인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조그만 마을 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한참을 쫓고 쫓아 갔싸고 맛있는 터키의 과일과 전통과자를 한아름 사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정시마다 오지만 10분뒤에도 혹은 10분 전에도 울수 있는 터키의 버스를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한 노인이 우리에게 터키말로 말을 걸어왔다. 너무나도 남루해 보였기에 그저 구걸을 원하는 줄 알고 한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참 뒤 우리는 한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꼬레'... 이 노인은 우리가 한국인인지를 묻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갑자기 노인은 줄줄이 한국 단어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서울, 인천, 부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행의 끝자락이라 돈이 궁한 우리가 직션을 해야 할 위기가기에 탐탁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타지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들으니 참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 노인이 손짓과 소리로 뭔가 터지는 것 같은 흥내를 내는 것이 아닌가?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우리끼리 가우풍하고 있었는데, 반박 그 몸짓이 포탄의 폭발을 의미하며 6.25전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수침을 꺼내 6.25라는 글자와 함께 분단된 한국의 영토를 그려주었더니,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히는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던 노인은 셔츠를 반쯤 벗어 어깨에 한 통상을 보여 주었다. 이쯤 되니까 우리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거리의 걸인일줄 알고 듣는채 만체 한 무례함에 대한 죄송함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가 이 노년께 진 빚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죄송하다고 해야 할지도 생각이 복잡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우리는 작지만 정성을 모아 하루 맛있는 잡수사라고 돈을 드리길 결심하였다. 그런데 그 노인이 설레설레 손을 흔들며 우리의 돈을 거부하는게 아닌가? 등심등성 빠진 누런이로 씩 웃으며 내 과일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집어 들었을 뿐이었다.

연이의 정복으로 고생하던 우리에게 마침 지나가던 오지랖 넓은 터키청년이 영어로 통역을 해주겠다고 다가왔다. 그 청년의 통역 덕분에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분은 21세때 한국전쟁에 자원했으며, 나

도 처음 들어보는 군우리전투, 금양장리 전투에 참가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만오천명중에 800명이 죽고 2500명이 부상을 당한 치열한 전투 이야기와 함께 사망자 중에는 15세 소년도 있다고 하셨다. 우리는 숙연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노인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터키는 용감한 투르크족의 후예여서 돌격 명령 때마다 알라신을 외치며 용감히 달려 나갔고, 자신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 중의 하나는 터키의 6번째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셨다. 그러다 노인은 이내 심각해지는 분위기가 미안했는지 우스갯소리로 너는 평양을 못 가봤겠지만 자신은 평양에 가보셨다며 너털 웃음을 터트렸다. 우리도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노인의 농담에 한참 웃었다.

그 뒤로도 노인은 전쟁과 한국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저리주저리 늘어 놓았다. 한 2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노인은 차가 올 때가 되었다며 두가지를 다루었다. 터키의 수도 앙카라의 한국전기념관을 가볼 것과 칸카르데쉬라는 말을 기억해볼 것이 두 가지였다. 칸카르데쉬는 피로 맺은 형제라는 뜻이었다. 여행 사정상 앙카라를 가진 못하겠지만, 노인의 낯을 보아서 그냥 알았다고 해두었다.

어르신의 말씀이 끝날 때쯤 우리 비로소 우리가 해군사관생도임을 밝혔다. 여간 속 쓰러웠지만, 오래전 위기에 빠진 조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미래엔 우리가 잘 지켜낼 것임을 말씀드렸다.

얼마 뒤 버스가 도착했다. 배차시간이 제 마음대로인 터키 버스가 무슨 일인지 정각에 도착했다. 노인과 악수를 하고 사진 촬영을 수차례 한 뒤 버스에 올라탔다. 매번 차에 타서 이동 할 때마다 누가 한국인 아니랄까봐 수다를 풀어놓았던 우리 일행은 무슨 일인지 그날따라 조용했다. 조용하다 못해 숙연했다. 2002년에 형편 터키와 조우했던 것처럼, 조국의 큰 은인을 만났기 때문이었으리라.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침묵하는 동안 나는 참 많은 생각을 했다.

나라가 빚을 진 수많은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하나도 생각해 보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칸카르데쉬 피로 맺은 형제...얼마나 가슴 벅차 오르는 말인가.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정도로 평가받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여행하면서 얻은 수많은 경험 중 어느 경험보다 이 감동적인 경험을 높게 치고 싶다. 이 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오래전에 터키의 한 병사였던 어르신은 나에게 사생관과 국가관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어느덧 여행은 끝나고 뜻 깊었던 여행을 마치고 나는 귀국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도생활에 복귀하였고, 월드컵 때 그랬듯이 또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있었다. 하지만 나와 터키의 어떤 인연이 있는 모양이다.생도 생활에 복귀하고 조

금 뒤 4주간의 연안실습을 통해 군함을 타고 우리나라 곳곳의 항구를 돌게 되었다. 그리고 기항지 부산에 이르렀을 때, UN묘지에 둘러 참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그제서야 노인을 다시 떠올렸다. 노인을 생각하니 잠시 송구스럽고 몽롱해진 나는 개인적으로 터키용사의 묘를 찾아 묵념하기로 했다. 또, 참전기록을 꼭 훑어보았으며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용산의 전쟁기념관, 통일전망대 근처의 6.25전쟁기념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터키 관련 전쟁기록들과 유품들을 찾아보았다. 돌궐은 투르크의 우리나라식 발음이라고 한다. 역사 시간에 과거 고구려가 돌궐과 연합하여 당과 수에 저항하였다고 배운 기억 난다. 아시아의 두 나라는 세월이 흘러 망하였고, 돌궐은 터키로 고구려는 코리야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는 이어져 한국전에서 혈맹의 모습으로,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뜨거운 우정으로 나타났다. 같은 우랄알타이어족이며 수천년의 우정을 간직한 두 나라. 가까웠으면 터키는 그저 여행 갔었던 해변이 아름답고 유적이 많은 나라로 끝났을 뻔했지만, 노인 덕분에 혈맹의 나라로, 가깝고 따뜻한 나라로 기억되었다. 칸카르데쉬, 피를 나는 형제로 말이다.

노인이 목숨 걸고 지켜준 우리나라를 이전 내 손으로 지켜야 할 때가 이르렀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리고 지금의 조국을 있게 한 수많은 분들, 우리나라의 어르신분만 아니라 외국에 계신 어르신까지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해군이 얼마전 소대위의 추모공원을 만든 것도, 그러한 생각들의 발로일 것이다.

6.25에 참전하셨던 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이 살 나라가 자유와 정의가 숨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송고한 피를 흘리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영묘대로 된 나라에 태어난 나는 그 분들이 주신 터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함을 느낀다. 더욱이 조국의 바다 수호를 책임져야 하는 나는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하므로 배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다. 터키와 대한민국의 인연, 그리고 터키와 나의 인연, 이 고맙고도 따뜻한 인연을 내 평생에 걸쳐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 노인과 약속한 앙카라의 터키 한국전 기념관을 가지 못했다. 죽기전에 언젠가 한번 꼭 들리러 다녔겠다.

칸카르데쉬의 나라 터키 꼭 다시 가볼테다.

•심사평 (진해문협 이사시인 김홍식)
정생도의 작품 '칸카르 데쉬 피로 맺은 형제'는 우선 글의 소재를 매우 잘 선택했다. 내용 중간중간 감동을 주는 글재주가 수준급이다. 마무리에서 다짐 또한 좋았다는 평을 해주고 싶다.

» 시

너의 이름은 눈부신 흰 푸르름이다

최우수
8중대 1학년 최소운

사랑스런 아가야

오늘따라 너의 웃음이 참으로 푸르구나

하루 종일 바다만 바라보다 왔더니

눈 안에 파도를 흠뻑 담아왔구나.

네 두 눈망울엔 새하얀 물거품이,

오색 진주빛 뿜 물안개가 네 미간에 어렸구나

싱그런 수풀아래 나와 함께 뛰어놀다

홍장난에 얼룩진 몸을 바다에 적시려 가겠단 너는

붉은 얼굴의 네 아버지처럼 석양아래 집으로 쉽사리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구나

너가 보고파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널 기다리는 나는

바다가 무서워, 차마 너를 부르려 가질 못한다.

바다로 날 이끌던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처럼 영영 집에

돌아오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풍량이 휘몰아치던 어떤 밤이었다.

널 찾아 헤메이던 나는 바다 한 가운데

달빛에 반사된 너를 보았다.

뱃사람의 실타래를 땃줄에 간직한 너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사람이었나 보다.

사랑스런 아가야.

바다의 시디신 푸름을 간직한 너는

어느 누구도 널 볼수 없게 나날이 큰 어른이 되어간다.

•심사평 (진해문협 이사시인 김홍식)

최생도는 우선 언어의 탐을 잘 썼었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다. 시어의 풍부함이 돋보인다. (석양아래 집에서, 달빛에 반사된, 바다의 시디신 푸름...) 그리고 시작과 마무리가 완벽했다.

해군해양과학기술 심포지엄 발표논문(요약)

<해양과학>
동해 해양환경과 군사적 적용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연구 현황 및 과제
- 김윤배 박사(서울대학교)

한일영유권 문제 및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 증대에 따른 독도해역에 대한 과학적 응답과 함께 과학적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하다. 학문분야(물리, 화학, 생물, 지리 등)의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해양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요구된다.

독도는 동도 정상부에서 기상청에 의하여 운용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풍속, 풍향, 기온, 기압 등 기상정보가 유일하며, 실시간 해양관측은 전무하며 특히 독도 및 12해리 영해 내에서도 현재 지속적인 해양관측이 전무하다. 잦은 기상악화로 해양연구자의 접근이 제한적이므로 해양 연구를 위한 장기간 해양관측이 어렵다. 외해연구 및 심해연구에 따른 대형연구부 및 연구과제가 요구되지만, 필수적인 연구부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해군사관학교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대 효과는 기관간 공동연구를 통한 교육적 연구효과, 연구자간 공동학술저술을 통한 연구역량의 확장, 울릉도 독도주변해역에 대한 해양환경연구 결과를 통해 수중음향 탐지환경 등 해군작전에 기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해군작전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이해도 및 예측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독도에 대한 학술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함으로써 독도 영유권 문제에 기여가 가능하다.

<해양공학>
군 적용 가능 해양공학 기술현황

대형 위그선 개발현황 및 활용방안
- 강창구 사장(Wing Ship Tech)

위그(WIG: Wing-In-Ground) 효과란 날개가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양력이 증가하고 저항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위그선의 안전성은 위그선 안전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이 활발하다. '99년 해상충돌예방규칙 제정으로 위그선 항법 규정을 제정하였고, '02년 안전한 설계 건조 및 운항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05년에는 위그선 운항요원 훈련 및 자격 요건을 확립했다.

뿐만 아니라 레이더 및 첨단 항해장비 장착으로 소형 장애물도 20~30km 전방에서 자동 탐지하여 충돌을 예방 할 수 있다. 초정밀 레이더, 자동 항적추적장비, 위성항법장치, 전자해도 및 자동선박식별 장치의 통합운영과 기존 선박과는 달리 유사시 급선회, 급상승을 통한 충돌회피가 가능하다. 위그선의 운용개념은 WIG효과를 이용한 선박에 항공기의 장점을최대한 활용한 초고속 해상운송시스템이다. 항구에서 발전, 작전지역까지 수면 위 저고도(1~5m)로 초고속(중대형:시속 300Km 이상)으로 운항가능하며 순항상태에서는 수면 위를초저고도로 운항하며 탐지장치로부터 은폐작전수행, 수상에 착수 후에는 수상선박으로 운항하며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모토를 개념을 도입하여 다목적 함정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WIG선은 활용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다. 적의 사거리 밖에서 초고속(현재 고속상륙정보다 3배 이상 속도)으로 기습 상륙함으로서 초수평선 상륙작전이 가능한 초고속 상륙함, 말라카해협 등 관심지역에 신속히 파견, 작전 수행이 가능한 기동타격함, 기존

지원체계 대비 월등한 기동력/작전수행능력 보유한 초고속 군수지원함, 특수작전 부대의 초고속 이동을 도울 특수작전 지원함, 중장거리를 은밀히 침투 후 기습타격 가능하고 미사일 사거리 연장 효과를 갖는 초고속 미사일함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Robot Fish 개발현황
- 김용환 교수(서울대학교)

로봇 물고기의 개발목적은 4억 5천만년 전 진화해온 어류의 추진, 운동 및 조종성능에 대한연구 및 활용과 많은 연구는 군사적인 목적, 일부 상용적 목적 및 전시용, 차세대 UAV의 모델이다. 최초는 MIT에서 시작, 관련분야를 학문분야로 발전시켰다. 일부 대학에서 일부 모델이 단편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주로 군사적 연구 및 기초연구로 지원되었다. 이에 비해 국내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로봇 물고기 연구의 난제는 물의 밀도는 공기 밀도의 900배 이상으로 공기 중에서 움직이는 로봇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동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유체의 특이 물체의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Vortex, flow, separation 등의 현상은 물체의 운동과 강한 상호작용이 있으나 이해 대한 해석이 쉽지가 않다. 또한 수밀 및 깊이에 따른 압력차를 고려한 설계의 문제점이 존재하며, 수중 3차원 6자유도 운동체계의 어려움 등이 있다. 우리도 로봇 물고기 연구의 지속적 연구와 교육적 지도 역할을 통하여 소형 및 대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무인잠수정의 역할 및 기술동향
- 이종무 박사(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무인잠수정은 원격제어 무인잠수정(ROV : Remotely Operated Vehicle)과

자율 무인잠수정(AUV :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로 나뉜다. ROV는 모션으로부터 무한의 전력을 공급받아 장시간 작업이 가능하며 높은 power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모션의 기동에 종속되어 작업 범위에 제한이 있다. 이미 보편화된 기술로서 상용화로 시장 형성이 되어 있다. 이에 반해 AUV는 자체 내장된 전원을 사용하며 제한된 시간과 낮은 power를 가진다. 하지만 모션의 제약이 약하여, 운용비용이 저렴하고 소형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OV의 기술은 이미 성숙되어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수중 로봇의 기술적 제약은 전자기와 사용이 어려운 것에 있다. AUV의 성능 향상에는 위치추적(항법), 수중 통신, 전원원, 자율제어 등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군 수요에 맞춰 기술이 발전될 것이다.

<무기체계>
최신 잠수함 무기체계 기술 개발

잠수함 소나 개발현황
- 오원철 박사(국방과학연구소)

잠수함 소나 발전추세는 SMART Skin Sensor를 이용, 잠수함 전체 표면 전체를 소나 센서 탑재 공간으로 확장하고 센서 성능의 극대화를 통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용기술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성능개량 수행을 통하여 개발 및 운용유지 비용 절감과 빠르게 발전하는 최신기술 적용이 가능하다. 소나와 무장통제를 완전히 통합하는 통합전투체계로의 발전을 통하여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통합 시스템 구조로 최적화된 설계를 하며

연동 비용 및 문제점을 최소화 시킨다. 거기에 장비탑재 공간 최소화로 잠수함내 장비탑재 여유 공간 확보가 가능해지고 장비 동작 전원 소모 전력 절감으로 잠수함 장항 작전 시간의 증대가 가능하다. 잠수함 소나 개발 계획은 장보고-III 탑재용 잠수함 소나 체계의 국내 개발 및 작전 운용성을 충족하는 함정건조 연계하여 적기에 공급 전력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성능개량이 용이하고 잠수함 수출경쟁력 확보 가능하도록 국산화 개발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전략 무기 비닉성 확보 및 해군 작전 개념 구현될 수 있는 잠수함 소나체계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잠수함 전투체계 기술 개발동향
- 이성은 박사(국방과학연구소)

잠수함 전투체계 기술 개발 동향은 설계 측면과 기능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설계측면에서는 음향/비음향센서 및 무장에 대한 통합제어가 가능한 통합 전투체계로 발전과 성능개량이 용이한 개방형 및 모듈화된 구조체로 발전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반에 COTS 기술을 적용한다. 표준화된 다기능관측 사용 및 주요기능의 Redundancy를 구현하고 LAN 기술 활용 증대 및 네트워크 능력이 향상된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기능측면에서는 네트워크중심전(NCW) 수행을 위한 Data Link 능력 확대와 적의 중심타격을 위한 대지공격 유도탄발사능력 확보와 다양한 센서 트랙의 비교일치에 의한 정보 연관, 연관된 정보를 이용한 시스템 표적 형성, TMA를 통한 개선된 표적 관리 능력을 확보한다. 동시 다수의 시스템 표적에 대한 자동화된 위협분석 및 전투가능성 판단 기능을 제공하고 운용자 편의를 극대화한 전환하면 편집/전시가능, 전술/일반 항해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각종 무

장에 대한 교전계획 수립 및 전시, 발사능력 능력 확보의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잠수함 추진체계 개발동향
- 중령 염영렬(방위사업청)

잠수함 추진체계는 추진 에너지원에 따라 원자력 추진, 디젤-전기 추진, AIP 추진, 하이브리드 추진으로 나뉘며 추진 방식에 따라 기계식(엔진 직결 추진기 구동), 전기식(전동기 추진기 구동), 혼합식(엔진 직결 + 전동기 추진)으로 나뉜다. 전기추진체계 특성은 수명주기 비용이 감소하고 유류 탑재량이 증가, 높은 안전성 및 신뢰성, 환경 부담비용이 감소하고 안락성이 증가하고, 정치 상태에서 최대 토크 발생이 가능한 고 성능이라는 점이다. AIP 추진체계 특성은 잠수함 추진 방식에 따라 재래식 디젤-전기추진, AIP, 하이브리드, 원자력 추진이 있으며 AIP 추진은 대기에 의존하지 않고 수중에서 장시간 동력을 발생시켜 함을 추진시키는 시스템으로 잠항 지속 시간이 약 3~4배이다. 각 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실전탑재 및 운용 중에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AIP 시스템은 대체로 저 출력으로 단일 추진체계로는 불가하여 기존 추진체계에 추가적,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에는 100% Full AIP System의 개발로 고출력 한계를 극복하고, 연료/산소저장량 수용 및 균형설계가 관건이다.

자료저리 : 정훈공보실 9급 박정기

해사학보 원고를 기다립니다
npress@navy.ac.kr
(055)549-1063

대학생 안보토론회 발표논문(요약)

한국해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3학년 이원휘 생도

탈냉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분쟁의 성격과, 원인은 매우 다양해지고 이 때문에 세계는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문제해결을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인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래의 안보환경으로 주목받는 해양은 최근 다양한 분쟁과 갈등의 주 무대가 되고 있다. 일례로 1994년 UN해양법 협약이 발효되면서 각 국가 간의 미해결된 해양경계 획정 및 도서지역 영유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자원분쟁, 해상테러리스크, 해적행위의 증가 또한 국제안보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해양이라는 새로운 안보환경의 등장으로, 앞으로 해상에서의 갈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양의 문제와 관련된 평화유지활동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까지 해군이 활동한 평화유지활동은 그 중심적인 분쟁지역이 지상이었기 때문에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미래 안보환경의 중심은 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군은 향후의 평화유지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한국에 있어 해양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번영의 핵심이

다. 한국의 무역은 대부분이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해양은 우리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한국 해군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상안보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해군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1991년 한국이 UN정식회원국이 되면서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93년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에 시작으로 현재는 13개국의 15개 지역에 한국군이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평화유지활동에서 해군이 참여한 사례는 매우 저조한 편이며, 그 역할수행에 있어서도 주로 수송임무 및 군수선단을 호송하는 제한적인 임무만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미래 안보환경에서 핵심이 될 해군의 평화유지활동에서 한국해군이 확대방안을 고찰하고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있어서 바다는 타국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며, 그 중요성은 국가존망을 결정짓고 만에 하나 발생하는 한국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가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해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가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부각 될 것

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 해군의 경우 현재까지 평화유지활동에서 제한적이고, 저조한 참여를 보여 왔으나 최근 KDX 사업, 대형 수송함 건조 등의 전력강화를 통해 앞으로 해상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 용납성, 적합성 차원에서 확인하였다.

셋째, 한국 해군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한국 및 해군 내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적으로는 해상교통로 안전보장과 관련된 분야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해군의 참여를 위한 준비로 해군은 이에 적합한 해군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체계의 구축, 다양한 연합훈련에 참가함으로써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한국 해군, 해상에서의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한국,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세계적 흐름, 이 모든 것은 현재 한국 해군으로 하여 해군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앞으로 지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60여년 전 우리가 받았던 세계사회의 도움을 이제 다시금 돌려줄 차례이다.

경남대 군사학술세미나 발표논문(요약)

제2차 세계대전의 호송기동부대와 현대전의 해상교통로 확보

3학년 김권태 생도

해양력이란 해상에서 또는 해양에 의해서 개별국가 국민을 위대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력이란 해양에서 또는 해양에 의해서 경제와 정치적 발전을 유도하는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교역과 상업, 어업, 자원개발 및 활용을, 정치란 외교정책 및 대외정책의 수행을 포함하는 것이다. 해양은 바로 이를 통한 교통의 매개수단인 동시에 세력기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양력의 기본이 되는 것은 해양의 자유이며, 이것 없이는 해양력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최근 한국은 해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해군력 역시 증강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류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외국 해군과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고, 몇몇 분쟁지역에 평화유지활동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한국의 노력이 이루고자하는 방향과는 달리 현실은 한국의 의지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듯 보인다.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에서는 항상 한국의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는 해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는 주변국들(중국, 대만, 일본, 필리핀 등)이 계속해서 해양보장을 받고 있어 이들 모두 한국 선박들에게는 상당히 위협한 해역이다. 이 해역들은

한국에게는 유일한 '비단길'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한국의 상선과 유조선들은 미군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다녔으며, 현재 대만 근해까지는 한국 함정이 호위를 하며 그 이후에는 미군 함정이 호위를 하고 있다.

현재, 한국 해군력의 증강과 한국의 이름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의 실질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판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해왔듯이 아직 상선, 유조선들은 미군 함정의 호위를 받고 있고 이라크의 자이툰 사단에 이르는 물자수송 또한 광개토대왕함(KDX-I)에 의한 단 한 번의 파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라크는 아직 전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여도 자국 군대가 해로로 10,000km가 넘는 지역에 파견되어 있음에도 물자수송을 자국의 힘으로 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수송경험을 부족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이제껏 어렵게 끌어올린 자국의 위상을 스스로 감추고 끌어내리는 행위라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해군은 이를 자각하고 자이툰 부대에 대한 수송지원작전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다.

40여년 전, 에스파냐는 영국의 사략선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무역선을 보호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단호송

제도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선단호송제도의 시초가 되었다. 300여 년 후, 이 탁월한 제도는 약세의 국가로서 통상과교전을 수행했던 영국이 오히려 자신들이 허가를 내주었던 잠수함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로부터 선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큰 효과를 보여주었고, 제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것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현재도 이것은 효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선단호송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무시한 채 선단호송제도 그 자체만을 바라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선단호송 개념 그들을 호위하는 자함조차 보호하기 어렵다면 이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국 해군은 제 2차 세계대전시 연합군이 쏟은 대잠전에 대한 관심·기술·노하우를 본보기로 하여 대잠전 및 선단호송기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그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 하고, 실력 신무기에 당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다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고안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사 발전기금 모금현황

(’08.11.1~’08.12.20)

| | | | |
|----------|-----------|----------------------|-----------|
| ■ 해사동문 | | | |
| 정진형(사5) | 1,000,000 | 권오정(사42) | 10,000 |
| 서상봉(사13) | 20,000 | 42기 일동 임관 20주년 기념 | 5,000,000 |
| 이부생(사19) | 100,000 | 신준호(사43) | 10,000 |
| 백승열(사27) | 100,000 | 정욱진(사52) | 10,000 |
| 권영준(사27) | 10,000 | 김정술(사54) | 10,000 |
| 최윤희(사31) | 10,000 | 이태양(사54) | 10,000 |
| 손정목(사32) | 10,000 | 최형현(사54) | 500,000 |
| 임민빈(사34) | 1,000,000 | 전혜현(사57) | 10,000 |
| 이승열(사37) | 10,000 | 하경석(사62) | 10,000 |
| 이근출(사37) | 10,000 | 이래용(사62) | 62,000 |
| 김유성(사38) | 50,000 | | |
| 정순용(사41) | 10,000 | ■ 현역 및 군무원, 학부형, 일반인 | |
| 왕강식(사41) | 10,000 | 이광철(준위) | 10,000 |
| 신장이(사41) | 10,000 | 임도원(하사) | 5,000 |
| 이종환(사41) | 50,000 | | |

해사 발전기금 조성운동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료제공 : 해사교육진흥재단 사무국)

해사동문이 먼저 한마음되어, 적극 참여합시다

■ 기부방법

- 매월 일정금액(예 : 1만원) 자동이체 가능
- 기부자는 해사 교육진흥재단 회원으로 등록되며, 일정금액 이상 기부시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처

(전화) 055-549-1328, 1336(사무국장)
(E-mail) jaedan@navy.ac.kr
(주소) 645-797 경남 진해시 안국동 사서함 88-4호
해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FAX) 955-546-9650

기부하시고자 하는 금액을 아래 계좌번호에 입금 후, 해사교육진흥재단으로 전화통보

- 우체국 : 900845-01-000303
- 국민은행 : 654-01-0314-117
- 우리은행 : 752-04-102800
- 농협 : 853-01-2243004
- 예금주 : 해사 교육진흥재단



생도들의 동계휴가 즐겁게 보내기...

2008년 동계휴가! 1학년 생도에 게는 하계휴가 이후로 모처럼 다시 맞이하는 긴 휴식기간이 될 수 있고, 2학년 생도에게는 첫 사적 국의 여행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 또한 3학년 생도에게는 자기 개발 및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 될 수 있다. 하계보다 한주가 더 길어진 동계휴가! 이처럼 모든 생도들이 이 날이 옳고 할 일도 많은 하계휴가와와는 달리 동계휴가는 더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생도들이 마땅한 계획 없이 시간을 흥청망청 써버릴 공산이 크다. 우리 모두 집에서 먹고, 자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하얀 겨울의 아름다움을 꼭 빠져 보는 것을 어떨까? 먼저 겨울의 아름다움을 대표할 수 있는 있는 정취로는 겨울 산을 빼 놓을 수 없다. 물론 겨울에 산을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오르고 나서는 그 짜릿하면서 시원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한 번 도전해 보기 바란다. 먼저 겨울 산으로 유명한 곳은 태백산, 운악산, 한라산 등이 있다. 태백산은 우리나라 12대 명산중 하나로 겨울에 찾아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산이다. 산이 높아서 겨울이면 거의 매일 환황혼 눈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는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태백산 눈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 한 번 가 볼만하다.

운악산은 개성의 송악산, 서울의 관악산, 파주의 감악산, 가평의 화악산 등과 함께 '경기 5악'으로 불릴 만큼 유명한 산이다. 거칠고 험한 모습의 운악산은 봄, 여름, 가을 동안 가려왔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를 겨울에서야 솔직담백하게 표출한다. 구름을 찌를 듯 솟아 있는 기암괴석이 모여 '남한의 금강산'이라고 불려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멋진 장관을 만들어낸다. 한라산은 사계절 시시각각 변화

무쌍한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산이다. 더욱이 다채로운 맛을 뽐내는 한라산의 겨울은 더더욱 강력하게 추천할 만하다. 눈과 바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조형물, 가지가지마다 솟아 피는 눈꽃들은 한라산의 매력을 더욱 빛내주는 것들이다. 또 추천할 만한 곳으로는 겨울바다를 빼놓을 수 없다. 겨울바다코스로는 정동진해수욕장이나, 서해 안면도 근처에 몽산포해수욕장, 꽃지해수욕장을 추천한다. 여자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겨울바닷가를 걸어다니면서 사랑을 키워나가거나, 친구들과 함께 펜션을 잡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또 한 겨울에 즐겨 할만한 스포츠로는 스키를 빼 놓을 수가 없다. 무주리조트, 용평리조트 등은 스키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다. 아직 스키장을 간 경험이 없다면 이번 동계휴가를 통해 스키장의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춥고 바깥으로 너무나도 나가기 싫은 동계휴가이지만, 이 기회에 수많은 추억을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만들어보자. 이러한 아름다운 경험들로 더더욱 설레는 사관생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1학년 이광훈 수습기자생도

부산국제영화제, 그 성공과 만남의 의미를 찾아서

뜨거운 햇살이 작별하는 지난 8월 4일 오후, 우리는 국제적인 영화제로 굳어진 부산국제영화제의 기획홍보팀 박준표 팀장님을 찾았다. 이번 만남의 목적은 사관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인사와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과 일에 관한 열정을 간접적으로 배우고, 이를 기회로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야 확장에 있었다. 우리는 가까이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남의 목표로 정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시의 과감한 행정적 지원과 자원봉사자 PIFF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명실공히 아시아 영화의 창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김기범 생도 :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박준표 팀장 : 영화제와 관련해서는 홍보일을 맡습니다. 또 방송 쪽에서는 지역 매체나 옥외 광고 중심의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직접 기자들을 상대하기도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고은수 생도 : 생도들은 일과 대

로 생활합니다. 팀장님의 하루는 어떠합니까?

박준표 팀장 : 저희들은 출근이 9시30분이에요. 홍보쪽 일은 대략 10시쯤 보도자료를 릴리즈하고(기자들한테 e메일로 해서) 11-11:30시까지 일과 전화통화를 합니다. 기자들한테 우리 기사 많이 실어달라고... 그 다음, 기사 스크랩을 하고 점심을 먹고 하루 종일 전화 업무에 매달립니다. 기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그때 그때 업데이트 하고 보도자료나 기사 거러다 준비합니다. 공식 퇴근시간은 저녁 6시입니다만, 기자회견이 잡힌 날이면 밤샘작업을 해야 하고, 다음 아침은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와야죠. 기자들 출근시간도 빠르기 때문이죠. 생도들처럼 일과가 정해지지 않고 아주 불규칙한 생활이랍니다.

김기범 생도 : 일하시는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으십니까?

박준표 팀장 : 일단 일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 배우나 감독은 거의 다 만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 집행위원장이기도 한 안성기 씨의 경우, 공황에서 내리자마자 자원봉사자들에게 우선 먹을 것부터 챙겨주십니

다. 동종된 씨도 스태프들이나 모두한테 친절하고 매너 있게 대해줘요. 안 그러는 배우들도 많거든요. 8월에 개막식이 (해안선)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장동건 씨가 폼살이 난 상 태였습니다. 어지간한 배우 같으면 기자회견을 취소했을 텐데 끝까지 성실하게 임했죠. 이를 보면서 장동건 씨가 진짜 스타란 것을 느꼈습니다.

고은수 생도 : 그렇다면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 요인은 무엇입니까?

김기범 생도 : 우선, 군대에서도 민·관·군 합동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도 비슷하게 시민들과 시청, 영화제 측 3박자가 잘 맞았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모임이 7:1의 경쟁률 이었는데, 이로써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었죠. 부산시에서도 매우 협조적입니다. 간섭은 최소화 하되 경제적·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무엇보다 영화전문가들이 영화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한다는 임장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컨셉을 잘 잡았습니다. 우리 영화제는 아시아의 영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영화제 인터뷰

다같이 돌아~ 우리나라 한바퀴! 전국 방방곡곡의 WINTER FESTIVAL

이번 겨울도 다양한 축제로 풍성한 계절이 될 예감이 든다. 전국의 주요 축제를 미리 알아보고 겨울 휴가 계획과 함께 생각만 해도 즐거운 겨울여행을 떠나보자.

【하이 서울 페스티벌】 2008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대표하는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그 주제는 각각 공, 한강, 예술, 빛이다. '빛'을 주제로 한 하이서울 페스티벌 겨울축제가 오는 19일부터 두 달 동안 서울광장과 청계천 등에서 빛을 주제로 펼쳐진다고 한다.

【대관령 눈꽃 축제】 강원 평창의 대표 겨울축제인 대관령 눈꽃축제가 내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설원의 예고 소드! 눈부신 순백 세상으로의 초대'란 주제로 대관령 면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대관령 양떼목장의 양떼목장체험, 수레마를 활태체험, 의의바람 마을의 겨울 레저 스포츠 체험, 전통사냥



올광장에는 스케이트장과 연계한 빛의 의자, LED 눈썰매, 조명탑 등의 볼거리가 들어선다. 특히 청계광장에는 LED로 만든 은백색 스크린, 눈꽃거리가 조성되고 광고 상, 하류에서는 매일 밤 '레이저 영상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그 밖에 독립문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의회 등은 '빛의 옷'을 입게 되고, 광화문에서 송레몬 간 도로 변 가로수 3백여 그루에도 백색의 형광전구가 설치돼 서울의 밤을 아름다운 빛으로 수놓게 된다.

이제는 각별을 고한 시간 2.6 25 22 31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2009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2009년에도 변함없는 한바퀴

다양한 국 김민아 67기 10대

2009년에도 변함없는 한바퀴

다양한 국 김민아 67기 10대

2009년에도 변함없는 한바퀴

다양한 국 김민아 67기 10대

민속체험, 수하리마을의 송어 얼음 낚시체험 등의 마을단위 겨울체험마를 등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또 지난해 선보였던 눈 조각보다 배 이상 많은 100개 이상의 눈 조각을 대관령면 곳곳에 배치해 대관령면 전체를 축제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눈을 자주 보지 못하는 진해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도들은 주말을 통해서 이곳을 찾아가 설경을 즐기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포항 과메기 축제】 울해도 어김없이 포항 '구룡포 과메기축제'가 12월 27일부터 2008년 1월 12일까지 열린다.

구룡포의 겨울철 명물은 '구룡포 과메기'이다. 멀리 시베리아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면 과도소리 요란한 바닷가 덕장에서는 과메기를 손질하는 어부의 손길이 바빠진다. 아들아들 숙성된 과메기를 마늘, 쪽파 등과 함께 갠이나 생미역에 얹어 조장을 짚어서 돌돌 말아먹으면 구룡포의 겨울은 어느덧 훈훈한 계절이 된다. 구룡포 과메기는 구룡포 지역의 차고, 건조한 바닷바람으로 대표되는 특유한 기후 덕분에 비린내가 나지 않고 쫄깃하며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1학년 이광훈 수습기자생도



를 부산영화제에서 하면 아시아의 영화를 찍을 수 있고, 세계 무비스트들이 영화제에서 아시아의 영화를 보게 되는 자연스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김기범 생도 : 전문가로서 우리 생도들에게 추천할 만한 영화는?

박준표 팀장 :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훈훈했어있거든요.(웃음) 그래서 일요일이면 대원들에게 비디오를 틀어 주곤 했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영화를 보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양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영화는 <그랑블루>나 <어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바다 관련된 영화는 무궁무진해요. 전쟁영화도 많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김기범 생도 : 해사 1학년 생도들도 2학기부터 외출 외박이 가능하니, 우리 생도들에게 부산국제영화제를 간략히 홍보해주시지요.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끝난 <부산국제영화제>의 박준표 홍보팀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영화인답게 일요일 하루만 해도 무려 3편의 영화를 보셨다고 했다.

박준표 팀장 : 야외상영의 경우, 파도소리 듣고 별을 보며 영화를 보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만 해도 건물 3층짜리 크기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영화의 맛과 경험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애인 있는 생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웃음) 영화를

게 되지요. 새로운 스타일의 소설입니다. 해사생도들이 영화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상상력을 키우셨으면 합니다. 사실, 군대라는 곳이 상상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고민 풀이 되기 쉽지 않아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사회 각 분야의 인사와 대화할 수 있는 장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인터뷰 후기

상상력은 리더십의 기반이며, 군대 역시 다양한 상상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부산국제영화제 기획홍보팀으로부터 배웠다.

1학년 고은수 수습기자생도



'강마에 신드롬' 한국 드라마계의 새바람을 몰고 오다!

베토벤 바이러스는 드라마가 종영된 지 한 달 여 지나가고 있지만 포털이나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온통 베토벤 바이러스 얘기로 가득 차 있다. 드라마의 가장 큰 미덕이 재미와 감동에 있다고 봤을 때, 이 드라마는 확실히 그런 요소를 갖춘 듯 보인다. 그런 재미와 감동의 중심에 바로 강마에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텔런트 김명민이 연기하는 지휘자 강마에는 통상적인 수준의 인물이 아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지위에 걸맞은 품격과 인격을 갖춘 지성미 풍기는 음악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재미는 바로 이런 강마에의 독특한 캐릭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부터 강마에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자.

"뭘? 내가 저만 쓰레기들을 데리고 공연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똥입니다. 똥똥어리입니다."(순간 모든 단원들이 어이없어 하자, 제차 단원 하나 하나씩 지목하며) "똥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똥! 똥! 어! 리! 입니다!!"

2. 모든 화법은 직설화법

강마에의 모든 화법은 직설화법이다. 빙빙 돌려 얘기하거나 언어를 순화하며 듣기 좋게 얘기하는 것은 그의 스타일이 아니다. 면전에서 바로 코앞에서 자신이 느끼는 상대방의 문제점이나 단점 같은 것들을 듣는 사람이 정말 눈물이 다 절릴 정도로 잘라 말한다.

상대방이 지난 어떤 아픔 같은 것이나 숨기고 싶은 자기만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은 적어도 강마에에게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공연이나 질 높은 연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개인적인 흥무라도 가차 없이 깔아뭉개버린다.

이 정도면 가칠까? 아니면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성격파탄자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의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카리스마라기보다는 일종의 별종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3. 완벽주의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

강마에는 단순히 시향을 이끌어가는 지휘자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파워다. 건우(강마에의 제자)나 두루미를 비롯해서 여러 단원들도 나름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며 드라마에 감초 같은 역할을 잘 해주고 있지만, 강마에의 기명민은 일찍이 그에 들었던 강렬하고 색깔 있는 연기로 드라마를 리드해 나가고 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특유의 비호는 말투로 그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속을 꿰뚫어 보며 배배 꼬인 사람의 면모를 제대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드라마 속의 강마에는 별종이지만 자신이 맡은 분야에선 그야말로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에 가깝다. 그런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자가 그가 독설을 내뱉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단원 모집이나 오디션에서부터 연습과 리허설, 그리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그는 빈틈없이 완벽하고 깔끔한 연주를 추구한다. 하지만 이런 그의 성향이 단원들이나 주변 인물들과 자주 부딪치는 요인 중 하나다. 적어도 적당히 하는 것은 그에게 통하지 않는다. 단원들 자신의 태생이나 수준 같은 것들은 오케스트라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신분이나 학력, 처지 같은 것들에 관계없이 적어도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만큼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지론이다. 안되면 노력해서 되게 해야 한다는 게 바로 강마에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다. 이런 기준에 미달된다 고 판단되면 아주 가차 없는 언어 폭탄이 쏟아진다.

4. 강마에를 떠받치는 두 가지 요소, 자존심과 실력

강마에는 자존심으로 푹푹 뭉친 인물이다. 그 누구라도 그의 이런 자존심을 훼손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할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그의 자존심은 좀 유별난 데가 있다.

적어도 강마에는 지휘나 오케스트라 부문에서 자신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춘 인물이다. 그의 오만과 독설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강마에는 극 중에서 실제로 그 정도 실력을 갖춘 인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실력은 곧 인격이다. '실력=인격'이란 등식은 그가 일관되게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자 평가 기준이다. 실력과 인격은 별개라는 통상적인 사고와 결론의 미덕 같은 것은 일체 고려하지 않는 그의 이런 독특한 기준 때문에 매 회 그를 둘러싼 갖가지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5. 압도적인 존재감과 진지하면서도 코믹한 스타일로 독특한 캐릭터 창조

일체의 가식을 배격한 솔직한 태도야말로 강마에가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일반 사회에선 나타나기 힘든 어도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만큼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지론이다. 안되면 노력해서 되게 해야 한다는 게 바로 강마에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다. 이런 기준에 미달된다 고 판단되면 아주 가차 없는 언어 폭탄이 쏟아진다.

회를 거듭할수록 이런 그의 스타일이 반복되면서 어느덧 강마에에겐 단원들과 오케스트라를 압도하는 존재감이 구축되었다. 특이한 성격이래도 그것이 반복되면서 좌증을 휘어잡고, 보는 이들을 몰입하게 만들던 카리스마로 이어지는 게 바로 캐릭터의 힘이다.

강마에가 비록 폭격기 수준의 인연으로 단원들을 몰아붙이지만, 늘 배뺀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음악을 대할 때, 그는 그 누구보다 진지해진 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가끔

씩 코믹한 면모도 보여준다. "우리 토벤이~, 우리 토벤이~" 하면서 개심을 갖춘 인물이다. 여기에 가끔씩 진지한 면모도 드러내며, 강마에는 단원들 모두가 자신들이 가진 잠재력을 깨내 보일 수 있도록 멘트를 날리며 지어보이는 그 못된 표정으로 드라마의 재미를 더한다.

6. 역경이 닥칠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마에의 매력

회를 거듭할수록 강마에의 그 독살스런 성질머리는 그의 캐릭터로 굳어져갔고, 그를 연기하는 김명민은 한 치도 흐트러짐도 없이 강마에 특유의 독설을 뿜어내며 드라마를 압도해나갔다. 한 회당 거의 하나의 새로운 독살가 강마에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가 아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 건우를 달달 부어댈지만, 결국 그의 앞길을 열어 줄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음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무시당하던 두루미가 어느덧 언젠의 마음을 품을 정도로 그는 리더로서 언제나 당당하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면모를 잃는 법이 없다.

역경이 닥칠수록 그는 뒤에 숨겨진 앞을 나서서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 상황이 어렵다고 현실과 타협하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의 스타일이 아니다.

강마에는 일견 말을 앞세우는 듯 보이지만 실제 행동도 그의 말을 따 대할 때, 그는 그 누구보다 진지해진 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가끔

7. 직설화법 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휴머니티가 강마에 바이러스의 진원지

현실에 안주하던 아마추어급 단원들에게 그간 강마에는 흡사 저승사자처럼 무서운 존재였다. 강마에는 단원들 모두가 자신들이 가진 잠재력을 깨내 보일 수 있도록 멘트를 품은 독사처럼 그들을 몰아붙였다. 그 결과 강마에의 그 험악한 말을 들어 가며 그와 함께 해오는 동안 형식이 아 예했던 단원들은 조금씩 진정한 오케스트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무지막지한 말투에 때때로 성취감에도 의외로 점조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음악으로 살에 희망을 심어주는 강마에의 그 묘한 인간미와 음악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 바로 단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이다. 모델감을 넣고 일러설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음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독살 뒤에 감추어진 강마에의 메시지가.

무지막지한 말을 쏟아내도 그는 단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가혹하지만 그들을 채찍질하지만 단원들조차 요즘에는 조금씩 발전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강마에의 위력에 새삼 놀라는 눈치다.

온갖 사건사고를 거치면서 진정한 오케스트라로 거듭나는 단원들과 갖은 우여곡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리드해가는 강마에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단원들이나 시청자들도 점점 강마에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는 듯하다.

1학년 이광훈 수습기자생도